

60년전 포화속 한국전쟁 잊을 수 없어 기도회 참석

“비 오듯 쏟아지는 포화 속을 울부짖으며 달리던 60년 전 한국전쟁을 잊을 수 없어 다시 찾았다” 33개월 동안 포로생활, 640명 중 120명만 살아남았다. 그때 뿌려진 동료들의 피가 이 나라를 지켰다. 눈시울을 적신 엘리스 알렌(90)은,

6·25 제60주년 한·미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한국전쟁 상기 및 평화기도회가 지난 24일(목) 저녁 7시 30분부터 새에네훈교회(소강석 목사 시무)에서 열렸다. 이날 기도회에는 스티븐스 주한미대사와 맥스웰 미 참전용사회 회장 등의 미국 측 인사와 김영호 전 국회의장, 이상득 전 국방부장, 김영진, 황우여, 우재창, 이춘식 국회의원과 박성철 국가조찬기도회장 등이 내빈으로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었다. 한편 이날 기도회는 새에네훈교회 4천여명의 성도들이 기립 박수를 하는 가운데 한·미 양국기의 입장에 이어 한·미 참전용사와 가족 2백여 명이 입장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1부 예배는 진교훈 박사의 사회로, 우재창 의원의 대표기도가 있는 후 소강석 목사가 ‘피로 맺은 우호 인약’(출24:6-8)을 제독으로 평화의 메시지를 전했다.



소 목사는 “성경은 구약에서는 집승의 피,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맺어졌다”고 소개하면서 한, 미 관계 또한 6.25 전쟁 때 피로 맺어진 혈맹관계의 나라임을 강조했다. 또한 소 목사는 다시는 이 땅에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기억하고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투철한 국가관과 확고한 안보의식을 심어주기 위해 새에네훈교회가 4년째 참전용사 초청행사를 하고

있다는 것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이번 행사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노고에 조금이라도 보답함과 아울러 한미우호증진의 길이 더욱 공고해지기를 바란다면 행사 취지를 밝혔다. 이어 황우여 의원과 박성철 회장의 대통령과 나라와 민족, 평화통일, 한미우호증진과 참전용사들을 위해 특별기도가 있었으며, 이어진 2부 순서는 새에네훈교회 이재준 집사와 이태원 집사(명지대학교수)가 한미 양국의 국기를 부르는 것으로

시작되었다. 특별히 한국 측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메시지를 이춘식 의원이, 미국 측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메시지를 스티븐스 주한미대사가 대독하였는데, 양국의 대통령들은 이번 행사에 참석한 참전용사들을 위로하고 격려했다. 이어 스티븐스 주한미대사는 한국어와 영어로 격려사를 동시에 전해 눈길을 끌었다. 스티븐스 대사는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 피로 맺은 동맹을 기리고 공동의 미래를 설계하기 위해 모였다”며 “우리 자녀들은 6·25 전쟁을 아주 오래된 역사로 알고 역사책에서 배울지 모르겠지만, 무려 3년간의 치열한 전쟁 가운데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겪은 이들이 있었음을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생생히 기억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상득 전 국방부장이 격려사를 했다. 한편 김영호 전 국회의장(한나라당)과 김영진 의원(민주당)이 격려사와 기념사를, 박세환 재향군인회장이 축사를, 맥스웰 미 재향군인회장과 세릴 모어 참전용사 가족 대표가 답사를 했다. 한편 국립현충원을 방문해 6.25

전쟁 시 산화한 동지들에게 헌화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새에네훈교회 한 한국전 참전용사 초청 보은 행사는 용산 전쟁기념관 방문, 서울타워·삼성전자 견학, 대구 2군사령부 방문 등의 일정을 24일까지 소화했다.

특히 6·25 60주년을 맞아 새에네훈교회 소강석 목사의 초청인 중에는 아들과 손녀와 함께 방한한 참전용사 아트 클라(80)은 “나 역시 60여 년 동안 이 땅을 그리며 살아왔다”고 말하고 “기독교 신앙을 갖고 크게 성장한 대한민국을 다시 한 번 내 마음에 품었다”며 소회를 밝혔다. 또한 ‘비 오듯 쏟아지는 포화 속을 울부짖으며 달리던 60년 전 한국전쟁을 잊을 수 없어 다시 찾았다’는 미국인 엘리스 알렌(90)은 깊은 감회에 젖었다. 그는 당시 중공군에 붙잡혀 33개월 동안 포로 생활을 했고, 당시 640명 중 120명만 살아남았다면서 그때 뿌려진 동료들의 피가 이 나라를 지켰다. 며 눈시울을 적었다.

구로구 교구협의회「이성 구청장 취임 조찬기도회」가져

더욱 낮은 자세로 따뜻한 마음으로 임기 4년 동안 구정활동에 힘쓸 것을 다짐

서울시 구로구 교구협의회(대표회장 정영근 목사)는 7월5일(월) 오전 7시 이성 구청장 취임축하 조찬기도회를 가졌다. 진행위원장, 부대회장 김길진 목사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 조종환 목사(예배위원장)의 기도와 장창윤 목사(찬양위원장)가 성경봉독을 하고 구로지구 여선교회의 특별찬양이 있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는 제하의 말씀을 부대회장 박재욱 목사가 선포했다. 이어 사무총장 김수정 목사 사회로 2부가 진행되어 대표회장 정영근 목사는 이성 구로구청장을

본전 교구협의회 공동회장으로 추대, 감사패를 증정했다. 또한 구로경찰서 교경경목회장 박재욱 목사는 민선 5기에 당선하여 취임한 이성 구로구청장에게 취임축하 패를 수여했다. 이어서 구로구 교구협의회 대표회장 정영근 목사는 환영사를 전하고, 공동회장 이성 구청장의 취임사가 있었다. 이 청장은 “이른 아침 조찬기도회를 통하여 이처럼 격려와 사랑으로 보듬어 주신 여러 목사님들께 깊은 감사를 말하고, 민선 5기가 끝나는 날까지 낮은 자세로 섬기는 구청장으로 바

로 설 것과 따뜻한 사람으로 구로구민을 위하여 구정활동에 열심을 다하겠으며, 하나님 앞과 목사님 앞에 낮은 자세로 부끄럼 없는 따뜻한 구청장이 될 것을 피력했다. 이어 박영선 국회의원, 이인영 위원장 등이 축사를, 고문 박현보 목사, 지도위원 이춘복 목사가 격려사를 전하고, 구로경찰서 최성규 집사 외 5명으로 구성된 폴리케일증창단의 찬양이 있었으며, 특별기도에는 1.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지도위원 김성현 목사, 2. 구로지역과 교회의 성장을 위하여 지도위원 권재명 목사, 3. 한국교회 및



이성 구로구청장 취임감사 조찬기도회를 마치고 기념촬영했다.

복음으로 통일 및 북한동포를 위하여 부대회장 한상휘 목사, 4. 구로구청장의 발전과 구민들 삶의 향상과 신임 구청장을 위하여 지도위원 전유성 목사, 5. 나 보다 못한 이웃을 위하여 서로 돕기 위하여 신우화장 최동욱 권사, 6. 부정한 사회 퇴출 및 진실한 신뢰 회복을 위하여, 영접위원장 윤병수

목사, 7. 대통령과 국내경제 회복 및 정치인들 화합을 위하여, 섬의 부장 김정길 목사 등이 기도했다. 이어 사무총장 김수정 목사가 광고와 배석한 내빈을 소개했으며, 지도위원 김성용 목사 축도가 있은 후 만찬과 친교를 위하여 지도위원 노용환 목사의 기도가 있었다.

·사설

누가 형제지킴이, 이웃지킴이나

우리는 천안함 사건과 6·25 60주년을 지내면서 착잡함과 불안함과 혼돈스러움을 겪었고 있다. 언제까지 우리민족은 강대국 틈에 끼여 새우 등터지는 꼴을 당해야 하며, 언제까지 이렇게 동족과 형제끼리 카인의 살인극을 벌여야 하는가? 자기 아우를 죽인 인류 최초의 살인자 카인에게 하나님은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Where is your brother, Abel? (창 4: 9) 는 물음에 카인의 대답은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인니까? Am I my brother’s keeper?’ 이다.

카인의 반문 속에 형 노릇과 장자노릇이 무엇인가를 말하고 있다. 성서는 장자를 통해 하늘의 기업을 상속하고 대물림을 하며, 하늘의 축복이 계승됨을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바로 그 장자의 책무와 사명은 아버지 대신, 아우들과 가족들을 돌보며, 가문을 책임지고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장자는 “가족을 지키는 자family’s-keeper”, “형제, 아우를 지키는 자 brother’s-keeper”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산상성교(눅15:11-30)를 통해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잃었다 찾은 완전perfect의 회복에 대한 사건 중, 죽었다 살아났고, 잃어버렸다 찾은dead and alive, lost and found 들께 아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잔치하는 가정을 말씀하신다. 아버지의 재산을 창고와 함께 탕진하고도 자기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며 돌아와 무릎 꿇는 아우보다,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대신하여 가족과 아우를 책임지고 지켜야 할 아우지킴이brother’s-keeper, 그 형의 마음이 문제인 것이다.

죽은 아우가 살아왔고, 잃었

다 찾은 아우에 대하여 시기하고 불평하는 카인의 마음을 가진 형이 진짜 탐자라는 것이다. 천국의 주인은 누구인가? 장자의 기득권과 힘을 가지고 악한 아우의 것을 빼앗은 강도도 아니고, 강도 만나 피 흘리며 숨어져있는, 아우와 이웃을 보고도 손대 안 보려고 피하여 도망치는, 만인 중에 하나님의 선택받은 장자인, 제사장이나 레위인도 아니다. 밤중에 찾아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느냐?’고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지킴이 neighbor’s-keeper인가?”라는 예수님의 대답이다.

우리는 60년 전 6.25의 형제끼리의 싸움에서, 수백만의 아우들의 죽음과 천민의 이산가족을 낳았고, 그 죄업으로 세 계통인 피눈물을 쏟으며 살아왔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역사의 비극은 현재진행형이다. 끝나지 않은 민족적 비극의 역사를 언제까지 지속할 것인가? 이제 카인의 역사는 끝을 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은 230여 나라 중, 경제와 민주화를 60년 전 뒷다리 속에서, 200년이 걸려 달성할 목표를, 짧은 반세기만에 이룩한, 유일한 나라로 세계 10대, 장자의 자리에 우뚝 섰다. 원조를 받고 UN의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강도만난 이웃과 악한 아우를 돌보고 지켜주어야 할 아우지킴이brother’s-keeper, 이웃지킴이neighbor’s keeper로 살아야한다. 우리는 천안함 사건과 6.25 60주년을 지내면서 착잡함과 불안함과 혼돈스러움을 펼쳐버리고 적극적으로 다시 대화와 소통을 통해 막힌 담을 열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피스메이커 peace maker로 나서야한다. 21세기 글로벌시대의 참 리더는 소통의 철학을 가진 자이다.

소진우 목사 2009년, 2010년 성회일정

한 해 동안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교회와 동역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9년 1월	2009년 6월	2009년 10월	2010년 2월	2010년 6월	2010년 9월
3-8 김맹산 기도원(임예제 회장) 5-8 일신교 회(김성택 목사) 12-14 홍산교 회(김영진 목사) 19-21 갈릴리 교회(오익주 목사) 26-30 벨라핀 선교회	1-4 인천마가다리(박병보 목사) 7-10 서북교 회(김대수 목사) 11 한빛교 회(임성택 목사) 15-18 김맹산 기도원(임예제 회장) 22-24 원도순 복음교회(장정환 목사) 26 임마누엘(이수영 목사)	1-8 마가다리(박병보 목사) 5-8 열린마가다리(장은혜 회장) 12-13 정기노회 13-15 서북교 회(박영택 목사) 16-20 파란교 회(노영수 목사) 22 서부시 열린마가다리(장정환 목사) 25-28 애광교회(정남기 목사)	1-3 한빛교 회(전복수 목사) 6-9 성미교 회(박복희 목사) 7 천보산 민족기도원(유택진 회장) 8-10 성일교 회(김의태 목사) 15-18 신교지 방문 21 천보산 민족기도원(유택진 회장) 22-24 평택성 일교회(김국복 목사)	5/31-3 김주기도원(김종환 회장) 6-9 열린마가다리(박복희 목사) 14-16 열린마가다리(박복희 목사) 21-24 김맹산 기도원(유택진 회장) 28-30 세광교 회(이영근 목사)	5-7 퇴계원 장로교회(김동근 목사) 13-16 고도교회 26-28 성일교 회(안성기 목사)
2009년 2월	2009년 7월	2009년 11월	2010년 3월	2010년 7월	2010년 10월
2-5 해남수 일교(박재욱 목사) 6 김맹산 기도원(임예제 회장) 9-11 옥산성 결교회(박영택 목사) 16-18 칠곡교 회(김성택 목사) 23-25 신교지(조성봉 목사)	3 성수기 도원(박영택 목사) 5-8 새영교 회(이영근 목사) 13-15 신학교 회(이성진 목사) 20-22 은평기 도원(조은원 목사) 24 김맹산 기도원(임예제 회장) 27-30 임마누엘(김순숙 목사)	2-5 김맹산 기도원(임예제 회장) 9-11 임마누엘(김정현 목사) 12 수동기 도원(이태희 목사) 16-20 신교지 방문 23-25 천국목회(장정환 목사) 30-2 대흥교 회(정남기 목사)	7 천보산 민족기도원(유택진 회장) 8 불일 축복대(심방(예복교 회)) 21 성일교 회(박태환 목사) 26 화광교 회(윤호근 목사) 29-4.1 김맹산 기도원(임예제 회장)	5-7 에스라선교전(이진희 목사) 12-16 신학성 여름특별대(이진희 목사) 19-22 예바다(유단기)도원(최민숙 목사) 26-29 임마누엘(김순숙 목사)	4-6 서북교 회(박영택 목사) 11-12 정기노회 12-14 은평기 도원(조은원 목사) 17-30 2주연수 부흥성 회(예복교 회)
2009년 3월	2009년 8월	2009년 12월	2010년 4월	2010년 8월	2010년 11월
2-4 도원교 회(유순기 목사) 2-31 불일축 복대(심방)	3-5 마가다리(박병보 목사) 5-7 김맹산 기도원(이영근 목사) 10-13 예바다(유단기)도원(최민숙 목사) 17-20 천문기도원(최정숙 목사) 20-25 은평기 도원(조은원 목사) 28 김맹산 기도원(이영근 목사) 30-5 십자가 불기(김순숙 목사)	7-9 신성교 회(김영진 목사) 14-17 해남수 일교(박재욱 목사) 20-23 한빛교 회(김성택 목사) 24 김맹산 기도원(임예제 회장) 25 임마누엘(이수영 목사)	5-7 도원교 회(유순기 목사) 12-13 정기노회 19-21 이레교 회(황준우 목사) 22 오산기(최익삼 목사)기도원 26-30 신교지 방문(원성현)	2-5 수도권 기도원(이영진 목사) 9-11 인천마가다리(박병보 목사) 16-18 경성교 회(이성진 목사) 23-25 집집 오남지역 기독교연합회(장영환 목사) 30-9.1 푸른초 장로교회(김영철 목사)	1-3 신학성 로교회(김영규 목사) 15-17 수원평 일교회(김원구 목사) 22-24 대흥교 회(정남기 목사) 29-12/2 할렙루교회(전 용목사)
2009년 4월	2009년 9월	2010년 1월	2010년 5월	2010년 12월	
6-8 목암교 회(주봉수 목사) 13-14 정기노회 14-16 이무리 교회(이재경 목사) 20-23 남양주 시가지(연합교회)(김영진 목사) 27-29 총회임 원교	4-7 에스라선교전(이진희 목사) 10-13 불일축 복대(심방(예복교 회)) 14 김맹산 기도원(임예제 목사) 20-23 미련교 회(이봉현 목사) 18-20 민족목회(부흥사단수원) 21 신교지 방문(25 부흥사단수원)	4-7 도곡신 기도원(임예제 목사) 10 대광교 회(오봉석 목사) 12 천보산 민족기도원(유택진 목사) 11-13 마가다리(박병보 목사) 18-20 신성교 회(김영진 목사) 24 화광교 회(한현희 목사) 25 천보산 민족기도원(유택진 목사) 25-27 신일성 결교회(최정숙 목사) 29 김맹산 기도원(임예제 목사)	3-6 성안수 일교(윤호근 목사) 10-12 세광교 회(김영진 목사) 17-20 광은기 도원(김태대 목사) 24-26 미련교 회(이봉현 목사)	6-8 예수비 전교회(김승범 목사) 13-15 신성교 회(조종남 목사) 20-22 청암교 회(조종남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예복교회
 YEBOCK PRESBYTERIAN CHURCH

한국교회 곳곳 폭력과 분열로 막장 치달는다

한국교회의 이러한 형태를 바라보신 주님은 슬퍼하신다. 주님은 하나 되라 하셨건만 한국교회 곳곳에서 주님의 몸을 찢는 폭력과 분열로'교계지도자들을 바라보는 교인들은 한숨만 지을 뿐이다. 이 책임을 어떻게 질 것인가 안타까움



▲그칠 줄 모르는 감리교(몸싸움으로 이규학 직무대행(중앙안경이 벗겨져자)

만 더해가고 있다.

한편 감목회장 재선거에 김국도 목사(임마누엘교회)가 단독으로 입후보 했으며, 교리와장정 (1021년 제10조 1항)은 단독 후보일 경우 투표 없이 당선된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김국도 목사의 총회 측

감독회장 당선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다.

총회 측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위원장 박상혁)는 6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 서울 광화문 감리회관 서울남연회 사무실에서 후보 등록을 했다. 김국도 목사를 대신해 진창기 장로(임마누엘교회 재정부장)가 후보 등록과 관련한 서류를 제출하고, 접수를 마친 선관위는 김 목사의 후보 자격을 심사하기 위해 대진 유성규 계통 스포츠에서 모여 심사 결과 후보로서 문제가 없음을, 저녁 8시경 발표했다.

김국도 목사가 단독 입후보했다는 소식에 분부 측은 어이가 없다는 반응과 함께 재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강현호)관계자는 “교단법과 사회법이 인정하지 않는 김국도 목사를 다시 후보로 받아 준 총회 측 선관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해 또 한번의 계선 회오리로 막장으로 달려가고 있다.

예정합동, 8.15대성회 불참 선언했고,

부활절연합예배에 이어 한기총과 NCKK가 공동 주최로 한국교회 100만 성도 참여를 선언하며, 명실상부한 한국교회 연합과 일치의 모습을 보여주려던 8.15대성회가 차질을 빚게 됐다. 국내 최대교단인 예정합동총회(총회장 서정배)가 지난달 24일 교단 차원에서 불참의 뜻을 담은 공문을 8.15대성회 조직위원회에 보냈다.

구체적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WCC총회 반대를 주도하는 입장에서, 반대 이유 중 하나로 지목하고 있는 NCKK가 공동주최하는 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밖에도 예정통합(총회장 지용

수)의 교계 연합행사 독주에 불만을 품은 탓이라는 얘기도 들린다. 정확한 이유가 무엇이든 한국교회의 연합전선에 이상이 생긴 것만은 사실이다.

기하성 네 번째 교단 탄생했다. 지난 1일에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네 번째 교단이 탄생했다. 최성규(인천순복음교회) 목사를 중심으로 하는 기하성 양평동측 교단대책위원회가 기하성의 통합을 위한다는 이유로 독자노선을 선언한 것이다.

셋으로 나뉜 교단을 하나로 합치기 위해 지난 2008년 통합총회가 개최됐으나, 이로부터 새로운 분열이 일어나 양평동측(대표총회장 조응목)과 서대문측(총회장 박성배)으로 나뉘어진 기하성은 양 교단이 법적싸움을 계속하는 가운데 지난해 여의도측(이영훈)이 독립을 해도로 3개 교단이 됐다.

이 와중에 지난 5월 양평동측 총회에서 통과된 개정법과 관련 그



▲순복음총회가 분열로(최성규 목사단독총회 선언)

내용 및 절차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최성규 목사를 중심으로 교단 대책위원회를 만들더니 급기야 새 교단 결성을 선언한 것이다.

이러한 한국교회 분열상은 비단 교단만의 문제는 아니다. 신대원 동문회, 경목총회 등과 같은 단체도 예외는 아니다. 감리교 산하 신학교 가운데 하나인 협성대학교 신학동문회마저 불법 총회 논란을 일으키며 2명의 동문회장이 세워져 분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

다. 경찰선교를 목적으로 모인 경목총회 역시 내부 분열로 2명의 회장 탄생을 목전에 두고 양측은 서로 불법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교계 한 인사는 "기독교 의원들 모임에서 설교하는 목사들 대부분이 서로 다투는 국회 모습을 제대로 보며 의원들을 비난하는데, 정말 그렇게 비난할 만큼 교계는 잘하고 있는지 되묻고 싶다"며 교계 지도자들의 대 각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뉴스미션

예정합동 기도한국 2010 기도의 열기로 잠실벌 달궜

기도하는 민족에게 소망이, 기도는 운동은 영성회복, 기도하면 하나님 이 일하신다. 이 민족에 평화의 꽃길을 열어 주소서,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 없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총회(총회장 서정배 목사는 6월 20일(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서울 잠실 올림픽공원 제1체육관(제조경기장)에서 6.25 전쟁 60주년 기도대성회 '기도한국2010'이 3만 여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열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이명박 대통령과 천안함 유족을 위해 온 힘을 다해 드리는 뜨거운 기도 열기로 잠실벌을 후끈 달구었다. 사회자의 제창에 따라 오른 손을 번쩍 들고 일어서서 “기도하는 민족에게 소망이 있습니다.”를 외치는 성도들의 모습에서 성령의 강력한 힘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2시부터 열린 청년집회에 이어 오후 3시 김인기 목사(준비위 서기)의 사회로 시작된 본 대회는 총회장 서정배 목사의 개회사와 김창근 목사의 기도 순으로 기도대성회의 막이 올랐다.

김 목사는“한국 교회 성도들의 간절한 열원은 대동강가에서, 모란봉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속히 오게 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다. 또 송태근 목사는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본문으로“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해 한국 교회가 복음의 원초적 메시지를 회복하고 기도에 전력을 쏟을 것을 역설했다.

또 송 목사는“한국 교회는 지금 다원주의와 실용주의가 판을 치고 있으며, 능률이라는 우상에 빠져 있다.”고 지적하면서“기신 들린 세상이 여러분의 기도로 축함의 권세가 물러가고, 병든 한국 교회가 치유되기 바란다.”며, “한국 교회는 재정과 인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면서 더 이상 기도로 없게 됐다.”

고 진단하고 “이렇게 교회가 많고,

붉은 십자가가 많은데도 왜 세상은 바뀌어지지 않았는가에 대한 통렬한 질문을 해야 한다.”며 “이런 종류로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해 힘쓰자.”고 호소했다.

이어 노홍민 목사, 고영기 목사, 최복규 목사, 이견영 목사가 나라사랑, 민족 사랑을 위해, 천안함 침몰로 고통받는 유족을 위해, 국가 안보를 위해, 평양에 기도한국이 열려 전 민족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날을 위해 기도했다.

또한 김병수 목사, 전인식 목사, 김연도 목사가 총신대학교 및 각 신학교와 목회자 후보생을 위해, 나라와 이명박 대통령, 위정자들을 위해, 한국 교회를 위해 기도했다.

정삼지 목사(준비위원장)의 사회로 시작된 2부에서는 '기도한국 2010' 대표위원장 길지연 목사의 대회사로 시작했다.

길 목사는 “이 세상에는 두 사람이 있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과 하나님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세상은 약하나 죄에는 강하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강하다.”며 기도한국을 통해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더욱 높이자고 도전했다.

길 목사는 또 “‘기도한국’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나라와 민족, 교회와 교단, 그리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셔서 능히 모든 환난을 극복하고 새 힘을 얻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박정하 장로(부총회장)의 기도와 남승찬 장로의 성경봉독, 2000여명의 단원과 70여명의 오케스트라로 구성된 새에덴교회(담임 소강석 목사)찬양대의 찬양으로 한층 더 은혜로운 장이 되었다.

이어 이번 대회의 상임위원장을 맡은 소 목사는 에스겔서 34장



30000여 명의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다



기도한국 2010 기도회를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5~28절을 인용“평화의 꽃길을 열어주소서.”라는 제목으로 회복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소 목사는 이날 참석한 선생의 말을 인용해“우리 민족은 고난의 역사, 눈물의 역사”라고 말하고 우리 민족의 수난의 역사를 소개하고“나라가 망하면 백성도 없고, 대통령도 없다.”며 나라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또한 소 목사는 특히“60년 전 6.25 전쟁으로 200만 명이 죽고, 1000만 명의 이산가족이 발생했다. 전쟁과 50만, 전쟁고아 10만 명이 발생했다.”며 처참했던 민족의 비극을 언급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김일성의 권력의 야욕을 짓밟아 주셨다.”하나님의 구원과 돌보심을 감사했다. 또 소 목사는“천안함 사건으로 남북은 긴장상태다. 한반도에 총성이 날 수 있는 이때에 기도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 우리가 모였다. 여러분은 한국 교회의 숨어 있는 영적 전사들”이라고 참석자들을 격려하고“우리 기도로 이 땅에 평화의 영이 임하고, 백두에서 한라까지 평화의 아리랑이 울려 퍼지고, 평화의 꽃길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자.”고 말했다.

이어 남태섭 목사, 정진모 목사, 최병남 목사, 문세춘 목사는 총회를 위해, 민족의 경제성장을 위해, 500만 성도운동을 위해, 5천 선교사 파송을 위해 기도했다.

길하나 교수(갈반대)와 여성소년 소녀합창단의 헌신의 찬양에 이어 안석영 목사(합신 총회장)와 유안석 목사(백석 총회장), 감대기 문화

부차관의 축사, 김영우 목사(총신대 학교 재단이사장), 하귀호 목사(GMS 부이사장)가 격려사를 했다.

3부는 박원영 목사(기회총무)의 사회로 진행됐다. 이광희 장로의 성경봉독, 장봉생 목사가 “거룩과 영광의 통로가 되자”는 제목으로 ‘능력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기도한국 2010’은 가수 노사연의 간증과 찬양이 있었으며,‘기도한국 2010’은 총회 총무 이치우 목사의 광고와 감사와 파송의 시간에 이어 부총회장 김삼봉 목사 축도로 마쳤다.‘기도한국2010’은 그동안 강사로 나섰던 대신 교단의 차세대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는 50대 목회자들을 강사로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기도한국’은 오는 2012년 교단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까지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기도한국 2010’은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남북의 긴장관계가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기도가 열렸다는 데 의미가 크다. 준비위원장 정삼지 목사는“아무리 우리 정부와 군대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하더라도 전쟁은 없어야 한다.”며 “전쟁은 그 자체가 악이요, 윤리적인 전쟁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목사는 이어 “수많은 생명을 담보하는 전쟁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와 빛과 생명을 주시기를 간구하자.”고 호소했다.

제33차 신임총회장에 이남웅 목사 선출

한국경목총회

경목회원들의 뜻을 존중하고 섬기며, 헌신과 희생을 각오하고 소임을 다할 것과 어떠한 부정이나 불법도 용납하지 않겠다.

한국경목총회는 6월 21일 오전 11시 한국기독교 100주년 기념관에서 제 33차 정기총회를 갖고 신임총회장에 이남웅 목사를 선출했다.

김길수 목사(인천공향대 경목실장)사회로 진행된 예배에 이정춘 목사(부회장)가 기도를, 경목 증경총회장 염신형 목사가 축사를 전했다. 마태복음 28:18 - 20절을 사회자가 봉독하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제하의 말씀을 총회장 원현영 목사가 선포했다. 이어 김옥주 찬양선교사가 헌금찬양을, 김태동 목사(한국경목총회 고문)축도로 마쳤다.

이어 임원선거에서 총회장 이남웅 목사, 부총회장 백승악, 엄기호, 김승연, 양재규, 김중순, 김중규, 정철호, 이정춘, 허식 목사 등이며, 총무 홍창표, 부총무 백동현, 협동총무 송근집, 장서경봉독, 장봉생 목사가 “거룩과 영광의 통로가 되자”는 제목으로 ‘능력의 메시지’를 선포했다.

‘기도한국 2010’은 가수 노사연의 간증과 찬양이 있었으며,‘기도한국 2010’은 총회 총무 이치우 목사의 광고와 감사와 파송의 시간에 이어 부총회장 김삼봉 목사 축도로 마쳤다.‘기도한국2010’은 그동안 강사로 나섰던 대신 교단의 차세대 리더십을 형성하고 있는 50대 목회자들을 강사로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기도한국’은 오는 2012년 교단 설립 100주년이 되는 해까지 개최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기도한국 2010’은 천안함 침몰 사건으로 남북의 긴장관계가 고조돼 있는 상황에서 대규모 기도가 열렸다는 데 의미가 크다. 준비위원장 정삼지 목사는“아무리 우리 정부와 군대가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다하더라도 전쟁은 없어야 한다.”며 “전쟁은 그 자체가 악이요, 윤리적인 전쟁이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목사는 이어 “수많은 생명을 담보하는 전쟁은 이 땅에서 사라져야 한다.”며 “우리는 이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평화와 빛과 생명을 주시기를 간구하자.”고 호소했다.



월 이상 미납 시에는 제명처리를 하지만 단 회비를 납부했을 시에는 회원자격이 회복이 된다. 또 회장 입후보 자격은 부회장 1년 이상 한자로서 해당되며, 고분의 역할도 3명에서 1명으로 축소했다. 수석부총회장은 유사시 집무대행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안대로 두며,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사무총무, 사무국장, 처장 등의 임기는 3년으로 변함이 없다. 또한 임원 회비 1년 이상 미납되면 임원의 자격이 박탈되며 피 선거권이 없다.

또 본회 규칙 16조 상벌 문 제에서 본회의 지대한 발전에 공로가 있는 자는 임원의 결의로 포상하며 격려할 수 있지만, 본회의 명위와 품위를 실추하는 경우도 임원의 2/3이상의 결의로 제명 조치할 수 있다면서 본 규약은 정기총회에서 개정할 수 있으며 규약 개정위원이 초안을 만들어 총회에 상정하면 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할 수 있고 통과 일로부터 시행한다는 새로운 개정안이 통과 되었다. 또한 직전총회장의 6,900만원에 대한 비리를 해명과 반환을 요구할 것이며 만일 불응 할 시에는 조사 처리키로 했다. 그 외의 사항은 임원회에 위임케 하고 마쳤다.

이 신임총회장은 경목총회가 나아갈 길은 전국 16개 시도 지방경찰청, 242개 경찰서, 기동대, 경찰대학, 경찰종합학교, 중앙경찰학교, 경찰병원의 경목들, 국민의 안녕을 위해 수고하는 15만 경찰과 60만 경찰가족을 위해 기도하며 영훈공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데 힘써 나가겠다는 포부를 밝히고, 경목회원들의 뜻을 존중하며, 또한 그동안 교계 많은 활동과 조직에서 얻은 경험들로 능력과 법을 잘 알고 있기에 경목총회는 어떠한 부정이나 불법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의 경목활동에 있어 소감을 밝혔다.

한편 총회장 원현영 목사는 비상정회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7월 19일 오전10시30분 한국교회 100주년에서 총회장 원현영 목사, 고문 김태동, 이상오, 지왕철, 박광수, 김용도, 조희재 목사 등은 제33차 한국경목총회 속회를 공고하고, 자격도 권리도 없는 현 조직은 명백한 불법이요, 경목총회와는 상관이 없다고 말하고, 총회를 잘 수습하여 경찰청으로 들어가 모든 것이 정상화 됐음을 알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쟁의 비극, 평화의 나라”

6.25 한국전쟁은 3년 1개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남한의 인명피해는 민간인 약 100만 명을 포함한 약 200만 명입니다.

공산인명의 인명피해는 100만 명의 민간인을 포함하여 약 250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군인 전사자는 한국군이 22만 7,748명,

미군이 3만 3,629명, 기타 UN군이 3,194명입니다.

중국 인민지원군과 북한군의 정확한 전사자수는

확인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위한 파괴이며 죽음입니까?

그 어떤 명분과 이데올로기로 이를

정당화시킬 수 있단 말입니까?

생명을 죽이는 일은 그 어떤 명분과 이데올로기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지상적 관계에 속아서는 아니 됩니다.

“전쟁의 비극, 평화의 나라” 중에서

목포주안교회(모상련 목사)창립27주년기념 집회가져

이호문 감독 강사로 초청 부흥회 열어 '성령충만과 영성회복 충전을'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행복하게」라는 표어 아래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주안교회(담임 모상련 목사)는 1983년 6월 13일 목포시 산정3동에서 교회를 개척을 시작 현재 목포시 북항동 소재에 교회를 크게 건축하고 입당예배를 드린 후 목포에서 중형교회로 우뚝 선 가운데 1만 명 부흥을 목표로

전 교인이 힘을 합쳐 전도에 힘쓰고 있다. 지난 6월 13일(주일)은 본 교회 창립 27주년을 기념하여 "맑은 양 찾기"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한 후 온 성도들과 함께 축하의 분위기 속에 교회에서 마련한 선물과 떡을 떼며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참된 교제를 가졌다. 모상련牧사는 300명의 성도들

과 함께 본 교회 지성적인 남약에 배당을 개척했으며 부흥성장하고 있다.

모 목사는 설립 27주년을 기념하여 인천송의감리교회 원로 이호문 감독을 초청 13일(주일)밤부터 심령대부흥성회를 열어 16일(목)까지 성령충만을 주제로 집회가 열려 성령충만과 영성회복의 충전을 이루는 축복의 장이되었다.

현재 모상련 목사는 부목사 4명, 협동 목사 2명, 심방전도사 3명, 교육전도사 2명, 협력교역자 1명을 두고 교회를 섬기면서 베트남 2명, 캄보디아 2명, 적도기니 1명 등 선교사를 파송, 해외 선교에 힘쓰고 있다.

또한 사단법인주인원 주안노인복지와 경로대학과 주안선교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전남 무안군 운



모상련 목사

남면 내리에 있는 폐교 된 내리초등학교를 구입 주말농장, 학습체험장, 신앙훈련 및 기도처, 체력단련장,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장으로, 청소년과 노인들의 쉼터 등의 목적으로 목포주안교회 수양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목포주안교회

반석교회 성전 입당감사예배



반석교회 예배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했다.

목대원장 정인찬 목사, 증경노회장 김기철 목사가 축사를, 증경총회장 서상기 목사, 부총회장 노문길 목사가 격려사를 전했다.

이어 정승희 장로의 인사와 광고를 전하고 증경총회장 한용택 목사 축도로 마쳤다.

이날 새 성전 반석교회 입당감사예배를 드린 정승희 목사는 소망과 기쁨과 평화를 나누자는 제 목아래 미아뉴타운 지구를 복음화하는데 힘쓰고 있다.

도림교회 30주년기념예배, 262명 임직 받아

대한예수교 장로회 도림교회(당회장 정명철 목사)는 지난 6월20일(주일)오후 3시30분 서울 영등포구 도림동 소재 본당에서 인수집사 104명, 권사 158명 등을 임직하는 예식을 가졌다.

당회장 정명철 목사 집례로 예배가 시작되어 영등포노회 부노회장 김성규 목사(하림교회)가 기도를, 부노회장 김영수 장로(발산동교회)가 성경 베드로전서 4:7-10절을 봉독하고 연합찬양대의 찬양이 있었으며, 증경총회장 김순권 목사(경천교회)는 "임직자의 자세"라는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이어 당회장 정명철 목사는 집사, 권사 및 교우들과 서약을 가졌으며, 인수집사, 권사 인수식이 있는 후 악수례를 가졌다. 또한 집사 취임과 서약을 갖고 선포함으



도림교회 30주년기념예배와 임직식

로써 262명이 집사와 권사로 임직을 받았다.

이어 임직자들에게 임직패를 증정하고 인명진 목사(갈릴리교회)는 임직자에게 권면율, 심판책 목사(화곡중앙교회)축사를 했다. 또 임직 받은 이가 교회에게 교회가

임직 받은 자들에게 기념품을 증정하고 임명진 집사의 인사가 있었으며 이진석 장로의 광고를 증경노회장 김중용 목사(신도림교회)축도로 마쳤다.

“통일교 노방전도로 포교활동 적극대처를”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는 통일교가 기독교 대형교회 청년들을 집중 공략하여 포교활동하고 있다며 이들을 적극 경계하고 대처할 것을 주문



통대협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

통일교는 현재 신 홍종 교로서 새로운 종교로 활동하여 통일교로서 발전을 요구하고 있다. 통일교가 현재 '세계 평화통일 가정연합' 명칭을 '통일교'로 다시 개칭하여 피스컵 축구대회, 전주평화연합 창설과 북한에 평화자동차공장 운영과 각종 스포츠, 레저 등을 이용하여 포교하고 있다.

통일교 세계본부교회인 '천복궁'에 1만명 전도 목표로 통일교 70~80년대 전도방식인 노방전도(길거리전도)로 포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기독교 목사와 성도들은 통일교 포교 활동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노란색 모자와 티셔츠에 통일교 이름과 마크를 새겨서 한 눈에 알 수 있도록 노방전도를 하고 있으며 대형교회 청년들을 집

중 공략하고 있으니 경계합시다. 용산구민회관을 매입하여 리모델링한 통일교 세계본부교회인 '천복궁'에 1만명을 채우기 위하여 전도하고 있는 통일교를 대처하기 위해서는 기독교에서는 용산주변에 있는 교회가 다같이 연합하여 통일교가 마음대로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또한 기독교 목사와 성도들은 다같이 한마음 한 뜻으로 기도하여 통일교 궤멸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한국기독교통일교대책협의회(대표회장 최재우목사) 사무총장 이영선 목사는 "통일교가 노방전도를 통하여 대형교회 청년들을 집중 공략하여 포교활동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각 교회에서 통일교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성도들을 철저히 교육시켜야 할 것임니다"고 말했다.

이영선 목사는 이어서 "통일교가 현재 전도할 때 강조하는 말 9가지를 통하여 질문하면서 원리강의를 하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하며 "통일교에 대한 경각심을 성도들에게 갖게 하기 위해서는 통대협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크게 복사하거나 교회측에서 플랜카드를 직접 제작해서 교회 게시판에 부착해서 통일교 궤멸운동에 적극적인



교주 문선명 부부

로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강조했다.

※ 통일교가 현재전도할 때 강조하는것

1. 하나님의 본질은 "참사랑"입니다. 2. "참사랑"이란 무엇일까요? 3. 인류는 어떻게 "참사랑"을 잃어버렸을까요? 4.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받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5. 하나님의 "참사랑"을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6. 통일교는 하나님의 "참사랑"을 중심으로 아름답고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 갑니다. 7. 아직도 통일교를 모르세요? 8. 통일교 문선명 교주 자서전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책 소개를, 9. '기계의 미래학 강연회' 초대하면서 행복한 미래와 평화로운 지구촌 한 가족 이상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소개하여 미혹하고 있다.

JTN방송 지저스타임즈 전국 지사 및 이사회 알림

지저스타임즈 JTN방송 2010년 제4차 전국 16개 지사장 및 이사회가 광주광역시 송정리(구.파랑새제식장) 온누리찬양교회에서 7월 22일 오후3시 모임을 가지며 본사 발전을 위하여 많은 참석과 협력을 바라겠습니다.

연락처 정대성 목사 010-3931-7277, 사무총장 장창윤 목사 010-5678-9950
대표 이사 정기남 사무총장 장창윤 기획실장 신언창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임마누엘선교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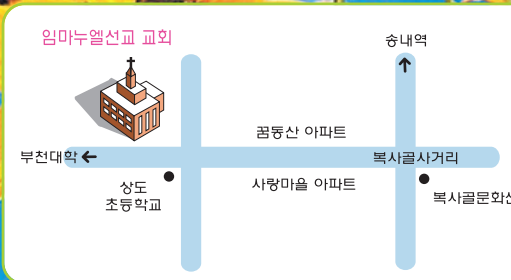
담임 현병우 목사
(본지 JTN방송 부지장)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HP 011-9710-9190

주일예배: 오전 11시 / 오후 찬양 2시

수요예배: 오후 7시

금요철야: 오후 9시

월·화 영성시역: 오전 11시 / 오후 7시



임마누엘 영성원

☎. 011-9710-9190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20-1

피종진 목사 7월 국내·외 성회 일정



피종진 목사

대한예수교 장로회 남서울중앙교회

www.nasca.or.kr 서울시 강남구 개포동 186

교 회 : (02)3411-9191 FAX : (02)3411-9111

목사관 : 010-5255-777 FAX : (02)401-7770

E-mail : Godbless3333@gmail.com

1(목)~ 4(주) 미국(U.S.A) 뉴욕 써니사이드장로교회(손헌권 목사) ☎(718)729-0854
5(월)~ 8(목) 미국(U.S.A) Nysko Conference Empire 2010 New York대회 장소 : Hofstra University ☎(704)823-7743
서울 시온교회(박필훈 목사) ☎ 010-8409-3538
거제도 양육기도원(원장 이유순 목사) ☎(055)682-4215
전국장로회 하기수련회, 대령비발디파크 ☎(033)430-7548
서울 임마누엘교회(최옥순 목사) ☎(02)436-1777
극동신문(김영현 목사) 창립 10주년 기념예배,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서울 주성청각장애인교회(우슬초 목사) ☎ 011-775-5154
서울 사랑의교회(정경운 목사) ☎ 010-6733-7464
양지 파인리조트 하기수련회 ☎ 010-4564-3200
주최: Global Mission(대표총재 피종진 목사, 대표회장 남미애 목사) 서울 소망교회(연인애 목사) ☎(02)573-7797
국민일보 직원예배(사장 노승숙 장로) ☎(02)7819-850
부천 세계지유선교센터(원장 민중만 목사) ☎(032)329-9182
성남 생명샘교회(박미숙 목사) ☎ 010-7742-3489
26(월)~27(화) 충주 금식기도원(원장 김승자 목사) ☎(043)853-3990
29(목)~31(토) 구미 천산소망기도원(원장 이성순 목사) ☎(054)481-1941

대한예수교 장로회

빛과소금교회



담임 이재갑 목사 (본지 JTN방송 운영이사)

교회 표어: 오직 예수, 재림신앙, 땅끝전도

21세기 비전

1. 하늘에 성금을 많이 쌓은 교회
2. 은혜와 진리가 가득한 교회
3. 사랑과 행목이 넘치는 교회
4. 땅 끝까지 선교 하는 교회

2010 목회 지침
아버지께! 감절로 부흥케 하옵소서
감절의 성도 - 감절의 영감 - 감절의 물질 - 감절의 승상 - 감절의 선교

담임목사: 이재갑
장로: 박광준 김해자
전도사: 김영주, 오정순, 김성임, 박예스더

(우)139-818 서울시 노원구 상계2동 389-50 ☎02)938-3521, 010-3228-3521
(빛과소금교회 수양원) 경기도 가평군 북면 화악리 116-5

반공교육 사라지고 정부와 국민은 죄파에 휘둘리고 있다

6·25, 60주년 우리민족을 살리는 길은 오직 기도뿐

명문 S대학교 입학생들을 상대로 ‘북한을 어떻게 보느냐?’는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69퍼센트가 북한을 ‘우리가 협력해야 할 대상’ 혹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이라고 했다. 10명 중 7명이 북한을 어떤 ‘적대적 대상’으로 전혀 여기지 않고 오로지 ‘교류해야 할 동반자’ 정도로만 인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에게는 ‘반공 교육’이 사라진지 이미 오래 되었으며, 그 대신에 이들이 자라나면서 듣는 것은 전교조 교사들의 ‘반미 교육’이나 좌파 정치가들의 ‘친북 선포’에 얽혀 있다. 그런 가운데서도 23퍼센트나마 북한을 ‘주의해야 할 경제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기적이 아닐 수 없다. 총격 정도로만 끝날 일이 아니다. 앞으로 정치계, 재계,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 등 각계각층에서 지도자가 되어야 할 인재들이 북한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과연 이 나라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생각만 해도 정말 두렵지 않을 수 없다. 이제 ‘6.25 전쟁 60주년’을 맞이한 한반도는 여전히 ‘휴전(休戰) 상태’이다.

오늘 나 자신이 북한 2천만 동포 중에 한 사람으로 살고 있다고 한 번 가정을 해 본다면 옥수수 배급식량조차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 수백만 명이 아사해 가고 있고, 아녀자들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몸을 팔아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릴 쌀과 돈을 구해 와야 하는 나라이다.

소위 ‘성분’이 나쁘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출세할 길이 없다. 심육철 세의 순진한 자기 딸을 ‘기쁨조’라는 희한한 이름으로 김정일의 성적 노리개로 바꿔 놓고도 부모가 그것을 영광이라고 생각해야 하는 처지이다. 김정일은 벤츠 자동차와 고급 꼬냑의 세계 제1위 고객이면 차도 북한 인민들은 밤에 위성사진을 찍어 보면 평양시 외에는 전국에 전기불빛이 거의 보이지 않는 어둠 속에 살고 있다.

김정일 자신은 대한민국의 오락 프로 비디오를 그렇게 즐겨보면서도 인민들은 라디오로 외국 방송만 들어도 정치범 수용소에 집어넣는 나라이다. 그처럼 ‘지옥 같은’ 북한에 살고 있는 2천만 인민들이 자기네들을 그렇게 압제하고 있는 김정일의 정권을 연장시켜 주는 것을 과연 고맙게 생각할 것인가? 제발 한국 청년들이여 북한이 이런 공산독재체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정말 올바른 ‘민족 공조’라고 판단이 되는가? 북한의 김정일과 공산정권은 ‘민족의 원수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다. 공산주의 자체가 철저한 무신론에서

출발한 사상이다.

더구나 6.25사변을 통하여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파괴하고 신자들을 죽였으며, 지금도 북한의 지하교회를 그 얼마나 끔찍하게 박해하고 있는가? 그런데 이런 악한 원수를 무슨 ‘형제 사랑’이니 하면서 도와주어야 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동편지같은 소리인가? 6.25 전쟁 때 중공군의 불법개입으로 그 공산정권을 완전히 말살시키지 못했던 것은 정말 한스러운 일이다.

그 뒤에도 김일성이 죽었을 때 국제사회 전문가들이 5년 안에 절로 망할 것이라고 보았던 김정일 정권을 ‘햇볕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기사화시켜 준 것이다. 그런데도 좌파 정치인들과 친북 종교인들은 이 나라의 청년들과 학생들의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를

사고 구조 속에 바로 그런 무서운 용공 및 친공 사상을 주입시키고 있다. 김정일의 목숨을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대신해야 하게 되는 사태, 당연히 망하게 해야 할 공산독재정권을 오히려 유지시켜 줌으로써 결국 대한민국의 존폐가 위태로워지는 꼴을 당해 보아야 하겠는가?

얼마 전 이명박 대통령의 ‘천안함 대국민 담화’가 있을 후 한 통의 편지가 청와대로 배달되었다. 그 봉투 안에는 2급 지체장애자로서 한 달에 48만원의 정부 보조를 받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3명이 “나라와 이웃들에게 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적은 돈이나마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사용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면서 53만원의 우편환을 동봉했다. 이 대통령은 “마음이 숙연해졌으며” “정성에 깊이 감동했다.”면서 “대통령이자 국군통수권자로서 강한 나라를 만들어야겠다는 사명감을 다시 한 번 마음깊이 새겼다.”라고 감사의 답장을 보내신 것으로 알려졌다. 그 성금은 천안함 추모사업에 사용

될 계획이라고 했다.

거의 같은 날 인터넷에서는 북한의 ‘전면전 위협’이 과장되어 ‘북한 전쟁 선포’라는 말이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올랐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다른 검색어가 그 ‘북한 전쟁 선포’를 제치고 1위 자리를 탈환했는데 그것이 무슨 말인지 아는가?

바로 ‘김연아 열애설’이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터지느냐 아니냐 하는 문제가 전혀 사실무근의 ‘김연아 열애설’에 간단히 밀려나고 말았던 것이다. 앞으로 김정일이 진짜로 전면전을 펼쳐온다 해도 먼저 간첩 해커들을 이용해서 ‘아무개 연애인 열애설’만 하나 띄워 놓으면 이 나라의 청년들은 북한 공산군이 휴전선을 돌파하여 서울 시내에 진군할 때까지도 그저 인터넷만 들여다보면서 그 열애설에 대한 댓글만 부지런히 달고 있을 것이 아닌가?

데모’를 하지 않았는가? 미군 작전 중에 ‘여중생 2명이 사고사’를 당했을 때에는 온 대한민국 천지 곳곳에서 반미의 촛불을 켜 들었으면서도, 천안함의 피격으로 ‘국군 장병 46명이 전사’를 당했는데도 왜 여러분의 손은 북한에 대하여 항의하는 촛불 한 개를 들기느니 오히려 ‘정부의 자작극일지도 모른다.’는 댓글이나 아직도 치고 있는가?

도대체 우리나라의 청년들과 학생들의 정의감과 양심이라는 것이 어떻게 되어 있기에 그렇게 판단하고 행동하는지 재발 그 이유를 좀 말해 주세요.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휴전선 철책선 안에는 북한군 GF와 겨우 1.6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 대한민국 국군장병들이 ‘유서를 써 놓고 머리카락을 잘라 남겨 놓은’ 후에 밤낮으로 경계근무를 서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북한이 ‘도와주고 협조해야 할 동반자’라고요? 여러분이 그렇게 순진무구하면 저 공산독재자가 감동받을 것 같은가?

김정일이 정말 그렇게 ‘합리적인 지도자’요 ‘같은 피를 나눈 민족’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퍼 주는 동안에 우리나라는 평화통일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긴장완화는 발해 되었어야 하지 않았는가? 여러 분처럼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아탑을 출입하고 있는 지성인 청년들이 김정일 같은 최악 저질 인간에게 속는다는 것은 너무나 바보짓이 아닌가?

우리 대한민국의 차세대 청년들과 학생들의 다수가 이처럼 친북좌파 사상에 물들게 된다면 조국의 미래는 너무나 두렵다. 이런 상태로 가다가는 북한 공산독재 정권이 스스로 망한 후에도 바로 이 대한민국 안에서 ‘공산당’이 합법적으로 세워지고 ‘공산주의’가 부활할 가능성까지 지극히 농후하다고 생각된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기독교인들의 목숨이 ‘공산 독재자의 목숨’을 대신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물론 그런 일을 상상조차 하기 싫다. 하지만 그런 기우가 현실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조국의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안 ‘6.25 전쟁’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더 이상 좌파세력과 좌파정치에 휘둘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정부와 국민을 친북좌파를 물리치는 힘이 필요하다. 여아를 떠나 어떤 사람이 국민을 위한 정치인인지, 좌파인지를 우리 국민은 눈을 크게 떠야 한다. 우리 국민이 하나로 뭉쳐야 산다. 오늘 이 대한민국을 향하여 공갈협박하고 있는 적이며 더 나아가서 교회와 성도를 위협하는 원수인 북한의 공산독재정권을 반드시 물리침으로써 진정한 조국과 민족을 지켜내는 이 나라의 국민,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 이 길은 오직 기도 외에는 없다.

칼럼

인내로 승리 감사

미국 대통령 플랭클린 루즈벨트는 말하기를, ‘소망하는 것을 얻으려는 자는 먼저 인내심을 가지라’고 하였다.

또 미국의 강철 왕 카야네기는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인내할 줄 알아야 한다.

조급하면 눈이 흐려지고 자주 분노하는 자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차분하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자의 머리속에는 지혜가 스며든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는 ‘사람은 누구나 천재가 되기를 원한다.

그리고 인생에서 성공하기를 원한다. 하지만 천재로 태어나서 인생에 성공한 자는 드물다.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만큼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인내심을 지고 끊임없이 참으며 근면과 성실로 살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였다.

여기서 보듯이 인생에서 성공하려면 해도 인내가 요구된다. 그런데 하물며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려면 우리 성도들이 인내하지 않고서는 믿음의 성공을 이루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안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서는 천국을 약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들어가시기까지 참고, 견디고, 인내할 수 있는 신비한 힘과 능력까지 주셨다. 그러기에 성도는 세상에 사는 동안 이런 인내심을 주신 하나님께 항상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복음 왜곡하는 안티기독교 연합 대처 주문

대응세미나에서 내부 자정운동과 사이버 공간 활용강조



달하면서 각종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교회가 공격당하고 복음이 왜곡되어 수용자들에게 교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안티기독교를 대처하기 위한 기독교언론과 교계의 관심을 촉구했다.

안희환 목사는 적극적으로 갈수록 대담해지는 안티기독교인들의 활동실태를 전하며 “한국교회가 안티기독교 단체에 대한 정체성이나 특성, 활동상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

했다. 또한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을 위한 효과적인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철우 목사는 “새로운 시각으로 사이버 공간을 바라보고 진화하는 기술에 맞춰 참된 복음을 전하려는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사이버 공간을 통한 새로운 선교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피영민 목사(정보통신위원장)는 “교회가 더 이상 안티기독교 세력의 활동에 침묵을 지켜서는 안 된다”며 목회자 및 성도들의 관심과 참여를 요청했다.

세미나를 기획한 이동현 목사(교회정보기술연구원장)는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안티기독교 활동에 적극 대처할 뿐 아니라 잘못된 교회 이미지를 해소하는 선교 도구로 활용해 나가야 할 때”라고 밝혔다.

대한예수교 장로회 목포주안교회

교회사명선언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이 설립하여 주신 주님의 교회임을 선포하며 다음과 같은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모상연 담임목사

-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라”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며라” 하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선교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갑니다.
- “올바른 예배”
“올바른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드리고 화이 삼가며 주님게서 주신복을 누립니다.
-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서로 사랑하며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며 행복하게 해줍니다.

주일예배 시간 장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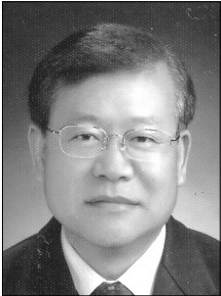
요일	예배	시간	장소
주 일	보통예배	1회 오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저녁예배	2회 오전 11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주일예배	오후 7시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수요예배	오후 7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금요예배	저녁 8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새벽예배	오전 5시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청년부예배	오후 5시	5층 영산강홀
주 일	대학부예배	오후 5시	5층 두란노홀
주 일	유치부	1회 오전 8시 30분	2층 세물장
		2회 오전 11시 30분	
주 일	유초등부	1회 오전 8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2회 오전 11시 30분	3층 아동연대
		3회 오후 2시 30분	3,4층 대 예배실
주 일	중등부	오전 9시	2층 영산강홀
	고등부	오전 11시	2층 영산강홀
주 일	영양예배	오후 1시 30분	5층 두란노홀

전남 목포시 북항동 1671-15(북항주택단지)

대표전화 : (061)272-4908, (061)278-0692 팩스번호 : (061)278-0693

대한예수교 장로회 공 덕 교 회

표어 : 말씀의 은혜 안에 행복한 교회



담임 서명범 목사

담 임 : 서명범 목사(본지 운영이사)

시 무 장 로 : 송두현 조길주 박성현

교육전도사 : 이광수

예배안내 : 주일예배 오전 11시 오후 2시

삼일 밤 오후 8시 금요기도회 저녁 9시

주소 : 충남 공주시 봉황동 295번지

전화 : 041)853-9966 855-0691

홈피 코렐렛 http://lov153.cafe24.com

대한예수교 장로회 주천성교회



예배모습

담임 권세능 목사

▷예배안내

구 분	시 간	구 분	시 간
주일 낮 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새벽 5:00
주일 오후 예배	오후 1:30	유초등부예배	오전 9:00
수요 저녁 예배	저녁 7:30	중고등부	주일 오후 3:30
금요 철야 기도	저녁 9:00	청년회모임	토 저녁 8:00

451-806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신궁리 245-4

☎ 031)656-5830

H·P 010-8585-9137

대한예수교장로회 조치원장로교회



담임목사 박 복 수

- 부 목 사 : 김장성
- 전 도 사 : 정원식
- 원 로 장 로 : 류영근 강창기
- 은 퇴 장 로 : 나세영
- 이래온퇴장로 : 이두길, 정성철
- 장 로 : 유익식, 김준용, 김성경, 이윤근, 전영규, 김민영, 정건모
- 지 휘 : 임재량, 최효숙, 강정민, 강선화, 유창근
- 피 아 노 : 강정민, 임사라, 윤혜태, 전보람, 김현경, 이종훈

▶생활목표 ▶나마다 성령으로 충성받고 기도하며 주일성수함시다.

삼일 조 생활로 축복받고 전도에 힘쓰시다.

▶지역봉사 ▶영북노인대학(수요일) / 무료급식수 / 금요일

이·미용 무료봉사 / 장학금 지급

사랑의 연탄나누기 / 조치원 마을 도서관 운영

▶후원계좌▶

농협 455 041-55-000317 / 예금주 : 조치원장로교회

예 배	시 간	교회 학교	시 간
대 예배	1부 주 일 오전 9:00	유 치 부	주 일 오전 11:00
	2부 주 일 오전 11:00	유 년 주 교	주 일 오전 9:00
주 일 오후	주 일 오후 2:00	학 생 회	주 일 오전 9:00
수요일 저녁	수요일 오후 7:30	청년·대학부	주 일 오후 6:30
새벽기도회	매 일 오전 5:00		
삼일기도회	금요일 오후 10:00		

TEL : 041)865-1301

FAX : 041) 864-8255

교역자실 : 041)865-1302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평리 6-1



가정예배

소진우 목사 (예복교회 담임 / 본지 사장)

1. 위기와 상흔에서

성경: 시편 70편 찬양: 446장

본시는 원수들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신속한 구원을 간구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1절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여 속히 나를 건지소서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오직 나의 도움은 저음도 하나님이시오 마지막도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절을 보아도 다윗은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우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니 여호와여 지체치 마소서”라고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위기상황 가운데서도 처음으로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간구하고 선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간증의 주인공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2. 소망의 힘으로

성경: 시편 71편 찬양: 542장

본시는 저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저작 배경도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인생의 황혼기에 접어들어 육체적으로 쇠약하고 병들었고 여전히 원수들의 위협에 처해 있는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절대적인 소망을 두고 구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수가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을 장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우리를 도와줄 사 랫은 없지만 우리를 도와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에 소망을 품어야 합니다. 세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을 향한 소망의 힘으로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3. 우산순위

성경: 시편 72편 찬양: 486장

본시는 솔로몬의 시로서 하나님이 바라시는 이상적인 왕은 어떤 사람이며 그의 통치 결과는 어떤 것인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으로는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의 통치와 영광스러운 그이 나라에 대해 예언하고 있는 메시아 예언시입니다.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시인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도가 가정 우선적으로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기도방향을 바르게 잡아야 합니다. 세상의 복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의 지혜를 먼저 구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을 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4. 공의의 하나님

성경: 시편 73편 찬양: 478장

본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만이 지혜의 근본임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즉 악인의 형통함과 의인의 고난으로 인해 한때나마 실의에 빠졌던 시인은 하나님이 결국 선 악간에 공의의 심판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소리높여 찬양한 것입니다. 1절-3절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 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라” 이처럼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세상적인 형통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가 아님을 아시고 공의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찬양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5. 거룩한 고통

성경: 시편 74편 찬양: 505장

본시는 이스라엘이 적국의 침략을 당해 성곽은 무너지고 성전은 훼손되는 비극을 목도한 시인이 하나님께 민족의 구원을 호소한 시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단지 민족적 위기 상황을 분개하는 것이 아니라 대신 하나님의 백성이 수모를 당하므로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게 된 것을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대적이 언제까지 궤방하였으며 원수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능욕하리이까” 오늘 우리들의 가정은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까? 물질과 건강으로 느끼는 고통이 아니라 주의 영광을 위해 고통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고통이 아닌 하늘의 거룩한 고통을 느낄 수 있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6. 가장 분명한 감사의 조건

성경: 시편 75편 찬양: 162장

본시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다스리며 악인을 심판하시고 겸손한 의인의 승리에 대하여 노래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심판예고에 대해 시인은 감사 찬양을 합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가울이까 사람들이 주의 기사를 전파하나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즉 시인에게는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해야 할 조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주의 이름이 가가움’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감사의 조건은 무엇입니까? 세상에서 우리는 안락함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 예고가 우리들의 가장 분명한 감사의 조건이 되어 세상을 승리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7. 인본주의 VS 신본주의

성경: 시편 76편 찬양: 342장

본시는 하나님께서 선민에게 승리를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는 찬양시로서 하나님을 경외치 않는 인본주의자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 곧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본주의자들을 위협하며 대적할지라도 그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당할 뿐이라는 사실을 교훈하여 줍니다. 5절을 보면 “마음이 강한 자는 탈취를 당하여 자기 잠을 자고 장사하는 자기 손을 놀리지 못하도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교만한 자의 최후적인 운명은 영원한 멸망인 것입

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자기 힘만 믿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여 영원한 멸망에 이르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여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8. 언젠가는

성경: 시편 77편 찬양: 487장

본시는 극심한 환난에 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으나 응답을 받지 못한 자신의 심적 갈등과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시인은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사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시인 자신이 이제껏 기도했으나 하나님의 응답은 없고 오히려 밤중과 같은 고난이 계속될지라도 자신은 계속 하여 기도하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기도 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하나님이 당장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하고 기도하기를 포기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있기까지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서 기도의 응답을 받는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9. 실패를 다짐들 삼아

성경: 시편 78편 찬양: 447장

본시는 출애굽 시대로부터 다윗의 통치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회상함으로써 백성들을 교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어진 시입니다. 즉 시인은 백성들에게 불순종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를 경고함으로써 조상들의 죄를 되풀이하지 않게 각성시키기 위해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무려 72절에 이르는 방대한 분량을 자기 민족의 부정적인 과거와 실패의 경험을 비교적 상세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성도는 실패의 역사를 보면서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시인의 노래를 통해 실패의 역사를 딛아가는 것이 아니라 실패의 역사를 다짐들 삼아 성공의 역사를 만들어가 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10. 하나님이 축복입니다.

성경: 시편 79편 찬양: 369장

본시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적국의 침략을 당해 멸망한 상황에서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와 구원을 호소한 시입니다. 시인은 이스라엘의 폐허화된 현실을 진술하면서 그것이 자신들의 죄악의 결과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셔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9절을 보면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축복과 저주의 기준은 물질과 건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임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 것으로는 부족할지라도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그 가정이야말로 진정한 축복의 가정입니다.

11. 기도하고 당당하게

성경: 시편 80편(1) 찬양: 478장

본시는 제79편과 마찬가지로 민족적 비극을 인하여 아삽의 자손 가운데 한 사람이 민족을 대표하여

민족의 구원을 호소한 민족제가입니다. 시인은 이방 원수에 의한 선민의 자손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참상이 눈물, 비웃음 등을 통하여 생생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선민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1절을 보면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자여 빛을 비취소서”라고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도와줄 사 랫은 없지만 도와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것임을 믿고 기도하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 하나님께서 하신다.

성경: 시편 80편(2) 찬양: 480장

본시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앗수르의 침략을 당해 멸망한 사건을 역사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목자와 양, 포도원 주인과 포도원의 관계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열방을 쫓아내시고 이를 심으셨나이다”라고 선포합니다. 즉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와 심어주시고 쫓아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시인은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과 사업장 그리고 자녀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심으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내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맡기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13. 순종 그대음을 기다리라

성경: 시편 81편 찬양: 542장

본시는 이스라엘 백성이 3대 절기 그 가운데서도 특히 장막절에 불렀던 찬송시 입니다. 절기를 맞이하여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을 권고하며 하나님의 위대하신 구원 역사를 회고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치 말고 순종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종의 결과에 대해 선포하고 있습니다. 13절을 보면 “내 백성이 나를 청종하며 이스라엘이 내 도 행하기를 원하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종의 결과는 16절을 통해 “내가 또 밀의 아름다운 것으로 자회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케 하리라하셨도다”라고 말 합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순종 그대음의 축복을 준비하신 하나님을 경향하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14.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성경: 시편 82편 찬양: 457장

본시는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공의의 하나님이 생명의 실현을 인간 통치자들에게 위임하신 만큼 그들이 마땅히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시인은 먼저 불의한 재판관들의 만행을 고발하면서 저들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8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판단하소서 모든 열방이 주의 기업을 되겠음이니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가정역시 하나님의 뜻하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흐름이 아닌 말씀의 흐름에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기억하고 주의 순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가는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여덟 번의 거절

결혼하고 우울증에 걸려
는 뭔가를 찾아 해매던 시절이었다.
어느 날 종로에 갔다가 박목월 선생님을 만났다.
선생님은 저를 살피더니
“니 요즘도 글 쓰나?
내가 일요일에는 집에 있으니
와서 다시 글을 시작해라.
시를 써오면 내가 봐 주겠다”라고 하
셨다.

그날부터 용기백배, 당시 들깨 아이를
임신했는데도
밤새 글을 써서 선생님 댁에 갔다.
“선생님 저 왔습니다.”
맨바닥에 앉아 글을 쓰던 선생님은
아무 대답도 안 하셨다.
배가 부른 상황에서 무릎을 꿇고 있
더니 죽을 맛이였다.
그렇게 10-20분 정도 기다리자 뒤를 돌
아보며
“왜 왔노?” 그러시는 겁니다.
우물쭈물하며 시를 보여드리니
종이를 획 던지면 글씨가 너무 크다고
“다음에 작게 써 온나.” 하셨다.
철대문을 나오면서 맹세했다. 이 문을
다시 들어오면 인간도 아니라고.
그런데 다음 주에 다시 갔다.
이번에는 글씨가 너무 작다며 종이를
던지셨다.

그렇게 여덟 번을 가셔야 선생님이 첫
추천을 해 주며 말씀하셨다.
“그 동안 고생했다.
자네를 종로에서 처음 봤을 때 너무 위
험했어.
그냥그냥 좋게 대우해서는 시를 쓸 수
없었을 거야.”
그때 명예를 얻는 길이였다면,
부름 얻는 길이였다면
철대문을 건너가지 못했을 것이다.
내 영혼을 살려야만 했기에 서러운 박
대를 당하면서
그 집에 들어갈 수 있었다.
선생님의 “그 동안 잘했어”라는 말을
기억하며
‘이보다 더 험한 길을 걸어왔는데 왜
내가 걸어가지 못했겠는가.’
라고 생각했다.
당신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모른
다면
어떤 바람도 당신을 도울 수 없다.

산미루제공

도심속의 실버타운 노인복지센터(요양원)

사랑의집 노인복지센터(요양원)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산곡동 194-6 산곡프라자 3층
전화 : 032)525-2838, 204-2838, H·P 010)4423-2838
사랑의집(노수자심터·무료급식)
주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청천1동 102-13
전화 : 032)524-6884 팩스 : 032)508-2838 h.p : 010)4423-2838



치매,중풍,노환 등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노년기 만성질환의 이로운을
모시는 사랑의집입니다.
현대식시설에서 가족과 같이 정성을 다해 내 부모분께 호도하는 마음, 저렴한
비용으로 모십니다.
입원시설 완비! 어르신들 먹여서 모셔오고 모셔다 드립니다.
인터넷 '인친택'에서 '치매'나 '중풍' 검색 (www.saranghouse.com)

■매주 화, 목, 토, 3일 동안 14년째 무료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월 1,000원으로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세상, 사랑의 집노숙자심터·무료급식)
비록 작은 청성이라도 모이면 큰 힘이 됩니다.
자활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사랑의집에서는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을 바라는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노력봉사:간병 청소, 목욕, 말발, 급식, 외출동행 등
전문봉사:이·미용, 간호조무사, 의료봉사 등

성서하나님의교회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Korea) (이천성서수원원)

www.scogop.net

생명의 양식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고후 3장 17절)"			
예 배 안 내	요 일	시 간	장 소
주일 예배	주 일	오전 11:00	본당 (2층)
찬양 예배	주 일	오후 3:00	이천 수원원
유치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기도실
초등부 예배	주 일	오후 1:30	본당 (2층)
중·고등부 예배	주 일	오전 9:00	지하 성전
청년대학부 예배	토요일	오후 6:30	지하 성전
스페인어 예배	주 일	오후 1:30	지하 성전
새벽 기도회	매일(월~금)	오전 5:00	지하 성전
수요 기도회	수요일	오후 7:30	지하 성전
금요 기도회	금요일	오후 9:00	지하 성전
2시 기도회	매일(월~토)	오후 2:00	기도실

원로목사 : 이철재 감독(Bishop)
담임목사 : 이정민 목사(Mi nis ter)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
면 너희가 광음을 받고 예루살
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
라”(행18절)

감독 이철재 목사

서울시 광진구 화양동 127-3호 (02)465-4090
성서수원원(이천 031)634-3590
부설 : 새생명 어린이집(02)464-3107

세계치유선교센터

(www.twhmc.kr)

원장 민충만 목사

(세계치유부흥사협의회 대표회장, JTN방송,
본지 부사장)
매일치유집회 2회 : 오후 2시 / 밤 9시
경기도 부천시 원마구 중동 1124-4
(태희프라자 3층)
대표전화 : 032)329-9182
010-9282-5873, 010-8376-2476

▶부천전철역(복광장)에서 셔틀버스 수시운행
▶부천 소풍터미널 셔틀버스 수시운행
셔틀버스는 비정기적으로 운행하니 미리 연락
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치유선교센터 개원예배 기념촬영〉

대한예수교장로회

주사랑교회



담임 정한국 목사
(본지 운영이사)

(우 473-080)

경기도 의왕시 내손동 748 대림프라자 7층

전화 : 031)424-7612

H.P: 010-4436-7060

영성이 살아있고 부흥하는 세계명성교회



최남복 목사
장안명성교회

내 아내를 살려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가 목사가 되었다는
세계명성교회 담임 최남복 목사

대한예수교장로회 장인동 세계명성교회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장인3동 2층에 자리하고 있으며 영적으로 영성이 살아있어 기도가 뜨겁고 말씀이 뜨겁고, 사랑이 뜨거운 감동과 감격이 넘치는 교회 담임 최남복 목사, 그는 세계교회 부흥선교협의회 부총재와 선한목자부흥사회 총재를 맡고 있으며 이 외에도 많은 분야에서 사역을 하고 있고, 해외선교에도 3국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지원하며 아프리카 지역에 교회를 세웠다.

최남복 목사는 내 아내를 살려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기도를 드린 것이 계기가 되어 소명을 받아 부름을 입게 되었다고 한다.

사실 저는 목회자가 될 만한 인물이 아니었다. 왜 성격이 엄격하게 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지지를 얻었다. 그러한 저를 하나님은 엄청난 채적으로 때리시고 옆으시는데 그때 저는 별 불일

없는 존재였다.

큰 아들이 40살인데, 아내가 큰 아들 한살 때 심장병으로 쓰러졌다. 제가 27살 때 결혼하여 28살 때 하나님 내 아내를 살려주시면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서원을 했다.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아내는 하나님의 은혜로 28년 동안 살면서 둘째 아들을 낳았으며, 둘째가 군대생활을 제대를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살아 있었으나 주님은 아내를 끝내 불러가 잠들게 했다.

제가 소명을 받기 전에는 시골에서 먼 서기로 공무원생활을 했다. 사실 어려서 주님을 영접했지만, 숨겨진 신앙이었다. 군대를 제대한 후 친구가 내게 전도를 왔었다. 그때 예수를 거절하고 친구에게 내 주역을 믿으라고 큰 소리쳤던 때가 있었다.

그렇게 살아온 제가 하나님 앞에 서원기도를 드린 후 76년도에 신학을 들어갔다. 하지만 신학교를 들어갈 때 면접과 시험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기 위하여 기도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떨어졌다면 할 말이 있기에...그러나 신학교를 들어가 공부할 하고, 36살에 목회를 시작했다.

둘째로 목회관을 말한다면 목회에 있어 기억에 남는 것과 보람을 아울러 말한다

제가 목회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이 있다면, 어머니가 살아계시고, 아내가 살아있고 교회가 부흥하고 있을 때가 보람을 느끼면서 목회하는 일이다. 개척 초창기에 교회가 계속해서 부흥이 되어 총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잘 알려지지 않는데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사실 당시 기도를 많이 했었다. 하

지만 깨닫고 보니 간증과 집회를 다니면서 내 자랑만 하고 다녔다.

목회 초창기에 교회가 부흥이 되고 부흥회 인도를 한 달에 네 번 다섯 번씩 다니다보니 정신없이 바쁜 것이다. 그 결과 교회의 부흥이 중단되고 목회가 힘들어지고 교회가 말이 아니었다. 그때는 이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불었습니다. 왜 어려운 일이 있으며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힘이 든니까? 하고 따지듯이 기도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산에 있는 정 00 목사의 간증에서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수요예배에도 빈자리가 늘어나고 해서 하나님 앞에 왜 내 부흥이 안될까? 하고 묻자 하나님께서 목회는 내가 하지 내가 하느냐? 는 음성을 듣고 충격을 받고 무릎을 꿇었다는 내용이 었다.

하나님 앞에 따지듯이 하는 기도가 아닌 왜 이렇습니까? 하고 구체적인 기도의 목적을 가지고 기도를 해야 하는데, 계속해서 부흥만 시켜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다. 이러한 기도의 테마가 잘못 되었음을 느꼈으며 깨달은 것이다. 그 후 부흥회 인도를 중단했다. 섬기는 교회를 부흥시키지 못하고 다른 교회의 부흥을 인도한다는 것은 잘 못이었다. 이것은 가증하고 위선적이었으며, 집회를 가서 교인들이 몇 명이 모입니까? 물으면 감사가 할 말이 없다. 그 결과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부흥회를 끊으셨다.

하지만 어떻게 된 일입니까? 하나님은 저를 신학교 교수로 사용하시는데 신학교에서 조차 인기가 올라갑니다. 영적으로 인도하는 영성교육이 좋았던 것이다. 그 결과 한 달에 많게는 다섯 군데 신학교 강의를 나가게 되었고, 육적으로는 너무도 힘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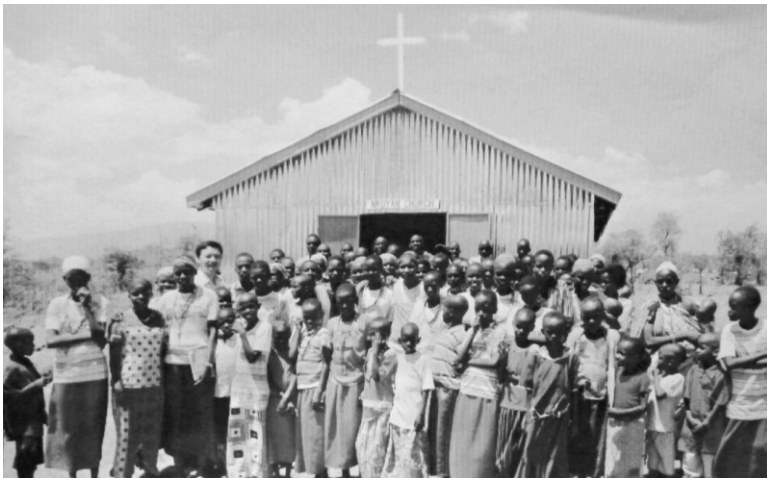
이 일로 인하여 개혁신학교 이사가 되고, 학장이 되어 일을 해온 것이다. 어떤 일을 할지라도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한다. 존경하는 어느 목사님의 말에 의하면 목회자는 세 가지의 종류가 있는데, 1)교역이다. 이는 하기 실을지라도 억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즉

목회이다. 2)교역이다. 이는 급여 타먹고 피동적으로 자동적으로 일하는 것을 말한다. 3)성역이다. 이는 오직 주님을 위해서 심자가를 지는 일이다. 교역과 교역, 성역에 대해 생각을 해 보았다.

목회자의 보람은 목회 선상에서 성도들이 순종했을 때이다. 제가 설교하면서 가장 큰 은혜를 체험한 곳은 중국이다. 그곳은 성령의 바람이 일고 있다. 문제는 중국에서 복을 전하는 것은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도 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바람이 강력하게 일고 있으며 설교하면서도 가장 큰 은혜를 입었다.

목회관 중에 또 하나는 철저하게 심는 것을 가르치며, 다음으로 순종이다.

목회를 하면서 교회를 자랑한다면, 성도들이 순종하고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따르고 기도회를 비롯해서 열정을 가지고 맡겨진 일에 최선을 다하는 일이다. 이것이 장안 세계명성교



케냐 선교지 방문 교인들과 기념촬영 최남복 목사(세계명성교회)

회의 자랑이다. 최 목사의 특성은 오직 말씀과 기도, 찬양에 있다. 예배를 드리고 나서 또 모이라고 하면 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의 아름다움이 자랑이다. 또한 최 목사는 성령의 감동으로 심는 비결을 가르친다.

최 목사의 철학은 오직 심는데로 거둔다는 것이다. 심는 가운데 국내선교와 해외선교에 힘쓰고 있다. 아프리카, 중국, 스리랑카, 일본 등지에 선교를 하고 있다.

선교하는 일에 게을리 한 적이 없다. 2010년 7월에는 말레이시아 선

교를 위하여 출국할 것이다. 또한 부흥회를 나가도 어려운 교회를 돕고 사례비를 받지 않고 돌아온다. 교회와 최 목사의 선교의 비전 이 여기에 있다. 한 마디로 기도로 다져진 교회이다.

교회의 특성을 말한다면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었다. 또한 예수님도 밤에는 기도하시고 낮에는 말씀을 전하셨다. 그래서 제가 체험한 것은 기도를 했을 때와 기도를 안 했을 때의 느낌은 달랐다. 제가 지난 4월에 영국, 프랑스, 체코, 오스트리아 독일 스위스 등 유럽 6개국을 다녀왔는데, 당시 네 명의 교인들이 동행했다. 그곳에서도 예배를 중단하지 않고 드렸다. 그래서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쓰신다.

최남복 목사(67)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교회는 오직 말씀과 기도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본 교회도 그렇게 하고 있다. 나와 함께 있는 이들과 동역자들이 내가 가는 곳마

다를 안 한다. 현재 한국교회의 목회자를 세 부류로 나누었을 때 1) 육신의 목회자가 있다. 밥먹고 살기 위해서 명예를 가졌다. 2)지적인 목회자가 있다. 지식은 엄청나다. 3)영적인 목회자가 있다. 성령의 사람들이 있다. 영적인 목회자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프리카 마사이족이 사는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왔다.

최 목사는 교회운영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고통 없이 작품을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알고 거저먹으려는 것은 잘못이다. 목회자도 기업인도 심어야 한다. 심어야 거두는 것이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어떻게 가을에 추수를 기대할 수 있는가? 저의 목회철학은 여기에 있다.

옛날 보리 고개 시절에 바가지에 검은 콩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종자 씨를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때 어린 나는 어머니 왜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요, 하고 물었다. 내년 봄에 심어야 할 씨앗인데,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 사람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종자 씨를 먹은 것이다. 그래서 목회철학은 죽어도 심일지는 먹지 말라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작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도 성도들도 알차야 한다. 그 결과 본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등 떠밀어도 교회를 안 나간다. 분명히 내실화가 되는 교회를 원하고 있다. 어떤 분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을 때 사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다문화되었다고 했다. 성경공부는 많이 했기에 머리에 지식이 가득 찼다. 그러나 기도가 없고, 애용하는 것도 없다. 요즘 교인들 가운데는 성경공부는 많이 해서 머리에 들은 것은 많으며, 그것으로 인해 목사를 경히 여기며, 우습게 여기는 일이 많다.

젊은이들이 머리는 좋은데 영적인 면에서 문제가 많다. 그들은 기

도를 안 한다. 현재 한국교회의 목회자를 세 부류로 나누었을 때 1) 육신의 목회자가 있다. 밥먹고 살기 위해서 명예를 가졌다. 2)지적인 목회자가 있다. 지식은 엄청나다. 3)영적인 목회자가 있다. 성령의 사람들이 있다. 영적인 목회자 성령의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프리카 마사이족이 사는 마을에 교회를 세우고 왔다.

최 목사는 교회운영에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는 고통 없이 작품을 이루어지지 않는다. 오늘날 젊은이들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심지어 알고 거저먹으려는 것은 잘못이다. 목회자도 기업인도 심어야 한다. 심어야 거두는 것이다. 씨앗을 뿌리지 않고 어떻게 가을에 추수를 기대할 수 있는가? 저의 목회철학은 여기에 있다.

옛날 보리 고개 시절에 바가지에 검은 콩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 종자 씨를 먹으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고민을 합니다. 그때 어린 나는 어머니 왜 그것을 먹으면 안 되는데요, 하고 물었다. 내년 봄에 심어야 할 씨앗인데,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 사람이 살아야 하기 때문에 종자 씨를 먹은 것이다. 그래서 목회철학은 죽어도 심일지는 먹지 말라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이 먹지 말라는 것을 먹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다.

그래서 교회는 작지만 분명한 것은 교회도 성도들도 알차야 한다. 그 결과 본 교회 성도들은 영적으로 훈련을 잘 받았기 때문에 등 떠밀어도 교회를 안 나간다. 분명히 내실화가 되는 교회를 원하고 있다. 어떤 분이 한국교회를 어떻게 보느냐고 물었을 때 사실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많이 다문화되었다고 했다. 성경공부는 많이 했기에 머리에 지식이 가득 찼다. 그러나 기도가 없고, 애용하는 것도 없다. 요즘 교인들 가운데는 성경공부는 많이 해서 머리에 들은 것은 많으며, 그것으로 인해 목사를 경히 여기며, 우습게 여기는 일이 많다.

젊은이들이 머리는 좋은데 영적인 면에서 문제가 많다. 그들은 기



케냐 선교지 방문 교인들과 기념촬영

대한예수교 장로회 **평안교회**



담임 장승현 목사
(본지, JTNT방송 논설위원)

“가족같이 가정같이 평안하고
행복한 교회로.....”

충남 당진구 송악면 봉곡리 55-6
전화 041)356-0644, 팩스 041)356-0646
E-mail : sunghyun732@hanmail.net
H.P 011)9027-9712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계명성교회**

WORLD MYUNG SUNG PRESBYTERIAN CHURCH

표어 : 너희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명성교회 신앙의 지표 :
1.영혼구원 1.전도폭발 1.성전건축 1.세계선교 1.구제봉사



담임 최남복 목사
Pastor Rev. Choi Nam Bo

- 교역전도사 : 이재훈
- 반주(피아노) : 사진아 / 반주올겐 : 정사희

예/배/시/간/안/내

주일예배	오전 11시	화요 기도	화요일 오전 10시
주요일예배	오후 3시		
수요예배	수요일 오후 7시	주일학교	오전 9시 오후 2시
새벽예배	매일 오전 5시	학예회	토요일 오후 2시
금요 기도	금요일 오후 9시	행년회	주일 오전 11시
			토요일 오후 4시
			주일 오전 11시

주소 131-103 서울시 동대문구 장안3동 435-3
제2성전 :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면 화정리 207-1
홈페이지 : http://yeajeon.onnam.com
☎ 교회 : 022248-0955 031575-0691 FAX 022248-0955
시택 : 02436-4579 H.P 010-5346-0955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
www.christianphoto.co.kr



목회자를 비롯 기독교인이면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기독교사진가 협회입니다.

(당신도 사진을 찍을 수 있고, 작품 활동도 할 수 있습니다)

대한기독교사진가협회 / 대한기독교영상선교회
회장 이성중 목사(전주 세움전교회)

대한예수교 장로회 **광성교회**

(부설 : 광성노인대학)



담임 장창수 목사

장 로
이유영 윤호중 조두현

안수집사
김형준 차경식 공종현
윤진명 이찬영

(우)447-140) 경기도 오산시 궐동 661-1

☎ 031)373-1151, 377-9872 팩스 031)372-2583

목회자칼럼

②, 목사를 피고로 하는 재판사건은, 상술한바와 같이 노회가 원심이니, 조속히 처결한다고 해도 하회권 침해도 아니요, 고유한 특권에 대한 유린도 아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정기회 때까지 천연해야 하겠느냐? 권징조례 제 6장 제37조의 교훈을 먼저 살펴보자, “복음의 영예와 발전은 목사의 명성에 관계됨이 많음으로, 노회는 마땅히 조심하여 소속목사의 개인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를 자세히 살필지니, 그 목사 됨을 인하여 편호(編戶)하여, 불공정한 판결을 하지 말며, 혹 그 죄를 경하게 벌하지 말 것이나, 또한 목사에 대하여 사소한 곡절로 소송하는 것을, 경솔히 접수하지도 말 것이다.” 또 (딤후전 5:19)은 “장로에 대한 송사는 두세 증인이 없으면 받지도 말 것이요,”라고 교훈(敎訓)하고 있다.

그런즉 목사를 피고로 하는 고소사건을, 정기노회 때까지 미루는 것은, 목사의 명성에 큰 영향을 받게 되는 복음의 영예와 발전에, 역점을 둘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귀결이요,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예우(禮遇)이기도 하다할 것이다.

③, 당회가 위탁하는 위탁결의나 문의 건인데, 이것도 정기회 때까지 천연(遷延)해야 할 이유는, “보통 각 회는 자체의 관별

력으로써, 각기 사건을 판단하는 것이 교회에 더 유익이 된다.”(권 제9장 제 78조)고 하였으니, 마땅히 자체의 관별력에 의해 판결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임시회에서까지 위탁사건을 처결할 수 있게 하면, 더욱 사건 위락을 간접적으로 권장하는 결과가 되기도 할 것이므로, 하회의 판결력은 점점 쇠퇴하게 될 것이요, 위탁사건은 격

목회자가 알아야 할 교회 법률(敎會法律)(5)

(목회자가 억울한 처리를 받을 수 있으니,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증하여, 결국 일을 만들어 일에 걸리는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이므로, 마땅히 재판사건의 임시노회 심판은 유익이 없다 할 것임으로 제지(制止)해야 한다 함이다.

3. 임시회의 청원.

소집청원 인이 있어야 한다. 임시노회를 청원하려면 “각 다른 지 교회의 목사 3인과, 각 다른 지 교회의 장로 3인의 청원”이 있어야 한다 하였으니, 결국 세 교회의 목사나, 또 다른 세 교회의 장로, 즉 여섯 교회, 세 목사 세 장로의 청원이 있어야 한다는 말이다.

흔히 임원회의 결의로 임시노회를 소집하는 줄이나 이는 오해요, 만일 청원인이

없음에도 임원의 결의로 임시노회를 소집했다면, 이는 위헌으로 원인무효이다. 임시노회는 반드시 소집청원 인이 있어야 한다. 헌법에 안건 수에 대한 규정이 없으니, 노회가 안건 수를 규정함은 위헌이니, 단 한 건을 가지고서라도 요건을 갖추었으면, 소집하는 것이 원칙이요, 안건 수를 빙자하고 거부할 수 없다할 것이며, 또한 특정

안건 때문에 임시노회를 요청하는데, 노회 임원회의 결의를 내 세워, 다른 안건을 임의로 추가함은, 청원인의 청원서(請願書)를 변조(變造)하는 죄악(罪惡)이요, 수임사항 이외에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임원임에도 불구하고 본분에서 벗어나는 월권(越權)이요, 탈선이라고 할 것이다.

4. 임시회의 소집권.

임시회나 정기회를 막론하고 처리회의 소집은 회장이 하도록 규정했고, 회장 유고 시는 서기가 대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는 조문에 대한 명백한 해석이 요청 된다.

이 조문이 ‘회장이 임시회를 소집할 수

있다.’고 하였으니, 결국 의무규정(義務規定)이 아니라, 임의규정(任意規定)이니, 요건을 갖춘 소집청원이 있어도, 회장이 소집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뜻이나? 그렇지 아니하면 “노회는 물론정기회로 소집할 뿐 더러 임시회도 소집할 수 있다”고, 임시회의 기능을 규정으로 보아야 하느냐? 본래 그 무슨 회의든지 회를 회집하는 데는 회장이 필요한 경우에 회를 소집하고, 또한 회원의 요청에 의해서 회를 소집할 수 있게 하였는데, 그 이유는 회를 대표하는 회장 권의 독주를 막고, 위촉되기 쉬운 회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 적절한 민주방식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회장 권이 강해야만 하겠느냐? 회원권이 강해야 하겠느냐? 회장 권이 강하다고 하면, 회원권은 것발할 수밖에 없으니, 우리 장로교회 정치가 채택한 민주방식이 아니요, 회원권이 강하고 회장 권이 약하다고 하면, 이것도 또한 자유정치나 조합정치일 수는 있어도, 우리 장로회 정치가 채택한 공화정치일 수는 없다 함이다.

다음호에 계속



이원석 목사
본지 상임이사

한 때이다. 그러나 지도자의 공신력이 떨어지지 오래 됐다. 대표회장의 인격과 리더십에 따라 단체는 발전한다고 보고 활동적이고 능동적인 김호운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추대한 것을 축하한다며, 태권도 선교는 세계 어느 나라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할 가는 성이 있는 매개체이므로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면 놀라운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면서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또한 홍옥화 목사(엘림장대자선교회 사무총장), 이종택 목사(독립문 총신대학교 교육원장)가 축사를, 이준재 목사(세계태권도 진흥원 이사장)는 격려사에서 세계 태권도 대학교를 세우는 것이 소원이라며, 세계 속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교육의 전당이 있어야 한다고 말하고, 전 세계 130개 국가에 태권도 대학을 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대표회장 김호운 목사 축도로 1부 예배를 마치고 2부에 들어가 문수영 목사의 광래로 시작 진성은 사범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세계태권도 선교를 위하여 구호 제창에 이어, 진 사범 및 4명의 태권도 시범을, 소영 무용단의 무용과 최완길 관장이 태권도 시범을 보여 태권도의 멋을 선보이고, 대표 회장의 폐회선언으로 선교대회를 마쳤다.

“사라지는 매장문화”



큐탄장로교회
서영웅 목사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마치 막으로 가장 귀하게 창조된 것은 사람이다. 사람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자 특별히 에덴동산을 사람에게 주시고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한다. 인간의 삶에 중요한 것은 법을 지키며 사는 것이다. 법은 규정이며 명령이다. 법은 인간의 삶을 윤곽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첫 사람 아담에게 명령하신다.

‘내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필경은 흙으로 돌아가라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 갈 것이니라 하시니라.(창세기3:19) 봄의 씨앗은 여름을 통해 환동 성장하며 가을의 결실은 추수로 마쳐진다.

나는 지금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 중에 어느 지경에 와있는지 자신은 알고 있을 것이다. 알곡과 곡절이는 디레스 이래 (심판)로 결정되어 진다.

나에게 생명이 있을 때 영원한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한다. 생명이 떠나면 살고 있는 지경을 떠나야 하는 것이 아닌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두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준비한 막벨라 매장지로 흙에 묻히어 간 것을 창세기를 통해 알 수 있다.

인간 모두에게 흙으로 돌아가라고 명하였는데 오늘 우리는 죽음(시신)을 너무도 불품 없는 쓰레기처럼 화장하여 납골함에 넣는 것을 보면서, 말씀을 배약한 사탄이 정제과 좁은 국토면적을 내세워 그럴 듯이 매장을 화장으로 바꾸어 유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야곱의 유언(창세기 49:31)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 되었고, 이삭과 그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 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 하였노라. 말씀은 일점 일획도 가감치 못하는 것이다. 시대의 흐름에 조화를 이루며 나가는 현실 속에서 각각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 하겠다. 성경 상에 버림 받은 자의 죽음은 화장을 하였다.

(사무엘상 31:13) 길르앗 아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뵈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아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에셀 나무아래 장사하고,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화장 모습이다. 오늘로 말하면 수목장을 치를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따라 흙에 매장함이 원칙이다. 삶도 중요 하지만 죽음은 더욱 중요한 것이 아닌가!

시대의 흐름은 막을 수 없다 하지만, 살아있는 불고기는 흐르는 시냇물에서 힘차게 역수하는 것이다. 죽은 불고기는 떠내려가는 것이다.

기도는 영혼이 살아 있는 자가 하는 것이다. 오늘 사라 저가의 매장 문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시대의 흐름을 역수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

우리의 기도는 생명의 약동이며, 명령과 법을 지키는 지름길이다. 세상의 권세를 역수하는 불고기는 종래에 하나님의 현현 하심을 볼 것이다. (출애굽기 24:10)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아래는 청옥을 편듯하고 하늘같이 청명 하더라.

세계 태권도 지도자 제16차 선교대회

전 세계 130개 국가에 태권도 대학을 세울 것을 밝혀



세계 태권도 지도자 선교회(총재 정동산 목사 대표회장 김호원 목사)가 지난 7월3일 오전11시 한국100주년기념관 소강당에서 제16차 선교대회를 열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한 선교 헌신을 다짐했다. 이날 예배는 오길자 목사(사무총장)의 사회로 진행 되어 민의호 목사(연합신학교 운영회장)가 기도, 안향애 목사(생명수교회)가 성경을 봉독하고(마28:19-20.행22:27-28) 김호운 목사(횃불중앙교회)는 “복음증거 최상의 조건들”이란 제하의 말씀을 선포했다.

김호운 목사는 90만 대한민국 공직자 선교회 대표회장과 세계태권도 지도자 선교회 대표회장 등을 맡고 있다. 대표회장 김호운 목사는 앞으로 두 단체의 발전을 위해 마지막 남은 생을 다 바쳐 일할 것을 다짐했다.

이어 정 총재가 공로 표창을 전달하고, 김 대표회장이 임명장을 수여했다. 또한 이윤구 목사(삼일교문.강북 명성교회)는 축사를 통해 ‘이 시대는 지도자의 역할이 중요

교회 후임자구함

사유 : 교회 아전

주소 : 서울시 중구 신당동

(지하철 3, 6호선 약수역

7번 출구에서 1 분 거리)

연락처 : 010 - 3944 - 0191

대한예수교 장로회 선일장로교회



담임 박주성 목사
본지 전주 지사장

전북 전주시 덕진구 인후동 1가 898-11

전화 063)241-9182 242-0134

H.P 017)816-0889

대한예수교 장로회 세일교회



담임 이이중 목사

(본지, JTN방송 상임이사)

원로 : 김영환 장로

장로 : 우만호 장로, 신호균 장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65-2

전화 031)714-1426, 7236

대한예수교 장로회 다니엘교회

표어 : 말씀이 응하는 교회(눅4:21)



담임 고성규 목사
(본지 운영이사)

하나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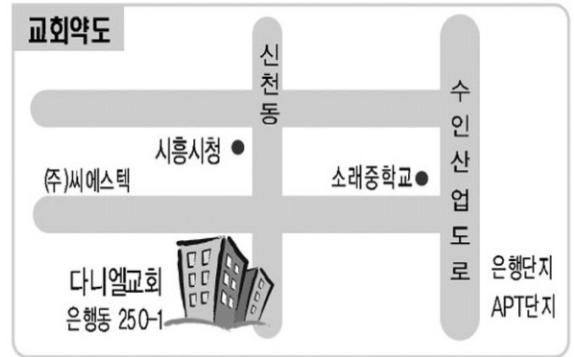
모든 학문과 재물에

명철하게 하신 외에

다니엘은

또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아 알더라(단1:17)



경기도 시흥시 은행동 250-1

http://daniel.onmam.com

교회 031)313-3454, 312-2613

기연목부협 강신숙목사 일정표



강 신 숙 목사
기독교연합 대표회장
강신숙문화예술선학원장



윤 병 호 목사
함빛교도소선교회 대표회장

7월 3일 해성교회 입당축하공연 (MC 김동철 선교사 축가 다윗성 목사와 함께)
7월 6일 - 8일 중국선교사의 10명 파송 및 임직축하공연
7월 12일 아연교의 변명선목사 콘서트 5대양 6대주선교회 우기순 목사와 함께 축하공연
7월 19-23일 열림 장예인 선교회(세계 장예인과 함께) 포천성회 축하공연 22일
7월 26일 함빛교도소 선교회 발족 및 재조사 자녀위한 항기콘서트(윤병의 목사)
서초아트홀 대강당
7월 29일 정주교도소 위문공연 윤병의 목사와 함께
7월 30일 여의도순복음교회 설교 강신숙목사 오후 2시

8월 2일 햇빛의 초정 축하공연 햇빛회관(8월 중, 통골선교 오후 2-4시)
8월 15일 8.15 광복절기념 구국 해방기념 콘서트
8월 24일 -26일 농야교의 선교회(담임 박용숙목사-우울초) 부흥성회
(강사: 강신숙 다윗성 김근우 광영권 유한나 허나은 윤영규 김경목목사)

9월 9일 필리핀 이경철선교사 (말씀간증 선교) CD음반제작등기 강신숙콘서트
9월 13일-15일 온세상선교교회 부흥성회(담임 윤지영목사)
9월 20일-22일 수원 평동 열림교회 부흥성회 담임 안희조 목사
9월 내째주 노숙자 선교회 돕기 문수영 목사와 함께 뽕나무기 콘서트

10월 10일 평택중앙교회 일일부흥성회(담임 김경목목사)
10월 중 유한나목사 다비 콘서트 CTS아트홀
변명선 강신숙 김경목다윗성 이광찬 임용남 김근우목사, 김진경 서보경

11월 1일-3일 인천 천전장유교회 열매 부흥성회
강사 : 조한수 종마리아 강신숙 윤매규 현영철 김경목 우울초목사
11월 세째주 추수감사절 축하 찬미제 장소 큰기쁨교회기도원(담임: 종마리아목사)

12월 14일 열매연서 및 성탄찬양콘서트(미자침교의 겨울나기 돕기 위한)
강사 : CTS TV 방송국 콘서트홀 2-7시
출연진 : 김진경 서보경 이광찬 유한나 허나은 전아 변명선 김경목 최바울 윤용섭 윤항기 김경목 다윗성

넬슨 만델라의 위대함

노벨 평화상 수상자이며 남아공화국 대통령을 지낸 넬슨 만델라는 흑백 갈등을 극복할 뿐 아니라 어려운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세계의 평화를 위하여 월드컵 남아공화국 유치를 오래 전부터 제안하고 마침내 월드컵을 개최케 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하한 공로자입니다.

그런데 월드컵이 개최되기 전 날 6월 10일 넬슨 만델라는 뜻밖의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그 손녀 제나니(13)가 축하공연을 보고 집으로 가는 길에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만델라는 슬픔을 감추지 못하여 월드컵 개막식엔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맡은 축사는 영상으로 처리하였습니다.어떻게 이룬 월드컵 개막식인데 참석하지 아니하니 이는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남아공화국 사람들만이 아니라 전세계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그들에게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고 남아공화국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데

결국 참석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는 아흔이 넘은 그에게는 다시 없는 월드컵인데 말입니다.

이것이 넬슨 만델라의 위대함입니다.너무나 인간적이고 인간적인 가슴을 지닌 것이 그의 위대함입니다.

그 무엇보다도 어린 손녀를 애도하는 일이 이 하늘 아래 그 어떤 큰 일보다 큰 일이라고 생각하는 그분의 진실이 인류의 희망이고 갈 길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한 마음에 이르고자 하면 열심히 살되 욕심은 버려야 합니다.



·건강칼럼

기독교상담과 성경적상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권면했던 사도 바울의 목소리는 현대 교회를 향하여 도전으로 다가와야 한다. [건강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디모데 전서 3:5] 여러 가지 형태의 경건의 모양이나 행위들 그리고 많은 화려함이 있을 지라도 분명한 능력이 보여지지 아니하면 그것은 어찌된 하나님의 말씀과는 관계없는 인본주의적인 발상에서 나온 인류애적인 행동일 뿐이다.

대구의 모 유명한 교회에서 하는 사회복지 사역의 일환으로 급식을 하는 곳을 방문해 본적이 있다. 깔끔한 시설과 규모 많은 숫자의 자원봉사자들이 나와서 열심히 가난한 이들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러나 조금 더 신중한 모습으로 그 사역을 들여다 보고는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많은 이들이 식사하는 동안 잔잔한 음악과 함께 들려지는 외곡 가스펠송이나 혹은 가끔씩 등장하여 국악 비슷한 공연을 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눈에 띄었다. 그리고는 언제 또 급식이 있을 것이라는 광고와 함께 교회 안내를 하는 것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다.

노숙자들이 알아듣지도 못하는 영어로 된 음악과, 교회와는 관계없는 사물

놀이 비슷한 공연, 그리고 교회소개가 전부였다. 막대한 공사비를 동원하여 사회복지시설을 세웠으면 그리고 많은 수의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교회의 헌금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먹이는 일을 하려고 했다면 왜 이러한 일을 하는 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시행했어야 옳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4. 성경적상담과 기독교상담의 차이

단지 사람들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해결해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교회의 구제와 복지 사역이라고 한다면 세상에서 하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요한복음 6:26] 교회의 사역은 분명한 목적과 사역동기 그리고 결과로 완성이 되어져야 한다.

그리고 분명히 그것을 인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한다. 말씀에 분명히 사람들의 상태에 대해 말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교회는 무엇이 두려워서 복음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지 못하는 것인가? 굶주림을 해결해주고 목마름을 해결해 주면 복지사역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굶주림과 목마름의 해결은 복지사역 혹은 복음사역의 시작일 뿐이다.

아무리 깨끗하고 맛있는 건물과 영양가치가 높은 식단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궁극적인 기독교적 복음과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결국 그들에 대한 예수님의 평가는 [배부른 까닭]이라는 말씀으로 도전해 주고 계신다. 현대 교회가 복지라는 이름으로 가난한 이들을 돕는 일들을 한다면 분명히 이 사역이 [배부른 까닭]에 그치는 것인지 분명히 말씀 안에서 조명해 보아야 하고 평

가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한다면 과감히 교회는 사역이라고 말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그만 두어야 한다. 교회가 말씀의 본질로 회복된 후야야 감당해야 마땅하다.

교회와 성도들의 헌금은 낭비되어지고 무엇인가를 나타내려고 하는데 쓰여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여져야 한다. 단순히 교회에서 밥이나 나누어주고 음악이나 틀어주고 하는 것이 복지사역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사역이라는 근본적인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고 있는 근본적이고 궁극적인 사역이 무엇인지를 말씀 안에서 살펴보고 성찰해 보아야 한다.

사람이 살려 지는 일에 무엇이 부끄러운가? 사도바울의 외침을 들어야 한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

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16] 복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분명한 능력을 만들어 내는 기초가 된다. 우리가 세상 앞에서 부끄러움을 상관이 아니하고 하는 모든 행동들이나 능력들 그리고 말씀의 확신 안에서 행하는 모든 외침은 모두 복음과 관계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또 그러한 것이라면 당연히 나의 부끄러움이나 교회의 부끄러움은 없어야 할 것이다.

사람들에게 초점을 맞추면 당연히 복음이 부끄러워지게 된다. 노숙자이나 알코올중독자들 그리고 사회에서 말하는 중독자들에게 다가감에 있어서 그들에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된다.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 무섭고 두려워서 양보하고 타협하고 다가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은 강력한 진을 파하고 기도 하며 사람들의 죄악 된 심성을 꺾고 나아 가게 하신다.

그러하기에 사도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그 누구 앞에서도 당당하게 복음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현대 목회 혹은 사역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확실성과 충본성을 분명히 인지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믿는다면 분명히 바울과 같은 심정으로 사람들을 보게 될 것이다.

다음호에 계속

김주원 박사
.....
알코올 및 약물 전문 상담사
분지 상담운영이사



좋은 가정분위기가 건강을 만든다! (21)

“종말로 형제들이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빌4:8)

가르침이란 한마디로 모델이 되는 것이다. 모델이 되어야만 교육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되고 효과가 극대화된다. 예를 들어 예방의학자 황성주 박사의 경우도 가끔 몸이 약해 보인다는지 나이에 비해 흰 머리가 많다는 지적을 받는 사람이다. 그는 그럴 때마다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한다.

특히 “예방의학의 대중화”를 부르짖는 의학자로서, 성서적 건강의 원리를 보급하는 사람인 그분으로서는 넘치는 건강

을 보여주어야 마땅할 것이다. 그러나 그분은 “건강은 점진적인 것이지 비약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분은 이런 건강진리를 깨닫기 이전과 비교하면 자신의 건강이 많이 좋아진 셈이라고 한다. 다만 최근에 와서 그분은 “습관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을 뿐이라고 한다.

그분은 어린시절의 편식 습관, 구부정한 허리, 운동을 싫어하는 아이로 잘못 형성된 습관 때문에 아직도 고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분의 허약성은 체질이 아니라 습관의 문제요 가정교육의 문제였다. 이점에 관련한 그분은 부모님께 할 말이 많다고 한다.

“매를 들어서라도 잘못된 건강습관은 일찍 그리고 반드시 바로 잡아주어야 한다”는 것이 청소년기에 공부에만 신경을

써온 빼어픈 경험에서 나온 그분의 지론이다. 다른 것을 희생할지라도 건강유산은 물려 주어야 한다.

흡연하는 습관을 가진 아버지를 둔 아들이 담배를 피울 확률이 90% 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된 적이 있었다. 이 결과는 흡연에 있어서 본인의 책임도 책임이려니와 부모의 영향이 엄청나게 크다는 사실을 증명해 준다. 모든 질병의 15%, 모든 암의 30%가 담배때문이라고 한다.

본인은 어쩔수 없다고 치자, 물론 의도는 없었다 할지라도 아들에게 불건강의 유산을 물려주는 아버지가 된다고 하는 것은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폭음의 습관에 찌든 아버지 때문에 자신도 모르게 잘못된 음주문화에 빠져드는 것은 흔히 있는 일이다.

동충한 엄마에 동충한 딸, 과식의 습관을 물려주는 엄마도 있을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건강의 절반은 부모의 책임이다. 습관과 분위기가 건강을 만든다. 용장 밑에 약졸은 없는 법, 튼튼한 부모 밑에 허약한 아이가 있을리 만무하다. 건강의 습관은 가정중심의 가정문화에서 비롯된다.

부모가 일찍자면 아이들도 일찍자게 되어 있다. 음악을 좋아하는 가정에서 자란 아이들이 정서가 풍부하다. 운동을 즐기는 아버지를 둔 자녀들이 운동의 묘미를 알뿐 아니라 스포츠미너가 넘친다. 가족 등반을 하는 가정의 아이들이 아무래도 활발하고 스케일이 크다.

아름다움을 가꿀 줄 아는 엄마를 둔 딸들은 맵시를 낼 줄 안다. 멋진 아빠에

멋진 아들, 현숙한 엄마에 현숙한 딸이 나오는 법이다.(이렇게 보면 자녀들이 부모를 닮았다는 말은 후천적으로도 자녀들이 부모로부터 배우게 된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보자!.)

현대의 불행은 가정교육의 부재에 있다(부모가 올바른 가치관 아래 분을 보이지 못한 결과를 포함한다.). 법사에 정성이 없고 자기 희생이 없다. 고뇌가 없고 진실이 없다. 스스로 모델이 되어 바른 습관을 가지게 해주는 것이 바른 가정교육이다. 건강의 측면에서도 세 살짜 버릇은 여든까지 간다. 모델은 커녕 오히려 어른들이 온갖 건강치 못한 생활양식을 보여주고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다.

이 혼돈과 불확실성의 시대에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 무엇을 물려 줄 것인가?

성경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명령하고 있다. 자녀에게 물려줄 최고의 유산은 신앙유산과 건강유산이다. 한마디로 하면 영적, 정신적, 신체적 차원을 포괄한 “총체적 건강”이다.

이 총체적 건강을 누리는 사람은 건강한 가치관, 건강한 가정관, 건강한 사회관, 건강한 국가관, 건강한 세계관을 가지게 마련이다. 총체적 건강은 거대한 영향력과 강한 전염력을 가지고 있다.

이 시대의 불행과 비극은 총체적 건강의 모델이 없다는 것이다. 병든 인간과 병든 사회를 치료하려면 건강한 “그 한 사람”이 필요하다. 우리의 자녀를 “그 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세계사의 흐름을 바꾸는 지름길이다.

황성주 박사 저 ‘성경 건강학’ 중에서



(주)금호상조

1566-4428

“이제 경조사는 웰빙토탈서비스에 맡겨 주세요”

운구에서 장지까지

남의 일로만 생각했던 장례절차 어디서 어떻게 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할 때 내 가족의 일처럼 세심한 준비로 큰 만족을 드리겠습니다. (주)금호상조는 관혼상제(장례문화, 결혼문화, 잔치문화)를 새롭게 정립하고 가격 현실화와 고품격 서비스로 예약 및 행사를 대행해 드리는 전문회사입니다.



일 반 형 20,000 X 120회=2,400,000원
고 급 형 30,000 X 100회=3,000,000원
최고급형 40,000 X 90회=3,600,000원
VIP형 50,000 X 100회=5,000,000원

직 원 모 집			
직 책	인원	자 격	보 수
지점장	0명	관리조직능력자	기본급+관리수수료
팀 장			영업수수료+각종 행사비
상 조	0명	무경험자 가능 30~50대 (보월경력자 교수역)	기본급(준근비)+영업수수료
설계사			각종 행사비
지 사	0명	회사규정 실시	영업비+관리수수료+
			각종 혜택 등 지원

365일 24시간 언제든지 출동 대기중입니다.

관혼상제 토탈 웰빙 서비스 -



(주)금호상조

전국(대표) **1566-4428**

홈페이지 : khsangjo.com

장례 행사 진행 절차

갑자기 닥칠 복잡한 장례절차 이제 안심하세요.

갑자기 닥칠 복잡한 장례절차 이제 안심하세요.

가입고객 전산입력 금융결제원 고객탕충거래 신청

(주)금호상조중서 및 약관발급(유료발송 7-15일 소요)

월불입금×100회=계약금액(회원 가입과 동시에 효력 발생)

월불입금×120회=계약금액(회원 가입과 동시에 효력 발생)

임종시 (주)금호상조로 전화접수 고객센터 전국 1566-4428

상향접수 회원조회 고인성명 및 병원확인

장례지도사 현장 파견

장례용품을 제공, 고인 시신수습 및 빈소 마련, 유족과 협의 종료, 기분에 따라서 알맞는 행사 진행

염습 및 입관, 제사 및 종교의식 진행

발인제 시간에 맞추어 장의차 배치, 장지로 출발 안내

서비스 만족도 조사

(주)금호상조 가입혜택 종료

당사 대행 업무

- 공원묘지 알선 · 묘지이상 · 식물 및 조경 · 풍수지리
- 산역안부 · 여지알선 · 꽃상여 · 화환 · 도시락 등

'리치부동산경제연구소' 평생 개척교회 100개를 목표로 기도하는 양기선 집사



소장 양기선 집사



이천 토지 상황도

리치 부동산 경제 연구소 소장 양기선 집사(연세중앙교회)는 여러 사업 분야 중에 본 연구소를 통하여 형편이 열악한 목회자들에게 재정을 키워 드려 신바람 목회에 힘이 되었으면 하는 뜻에서 시작되었다.

양 소장(집사)은 오랜 신앙생활은 아니지만, 예수를 믿으면서 시련도 있었다. 크지 않은 사업이지만 부도를 경험하며 어둡어둡하고 침침한 지하방에서 신혼을 보내기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와 기쁨으로 찬송을 부르게 하심은 아내와 함께 교회에서 예배하며 철이기도 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이라고 고백한다.

하나님께서서는 한량없는 은혜로 우물 증으로 인한 자살 충동에서, 심한 위장병 등에서 치유 해 주셨고 폐결핵의 고봉 속에서도 치유의 은혜를 주셨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은 건강하며 슬하에 3자녀의 자랑스러운 가정이다.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것이 부동산 분야의 직업이었고, 처음에는 부동산의 "부"자도 모른 상태에서 부동산 업에 뛰어들어 하나 둘씩 경험을 축적해 나갔다. 큰 돈을 번다는 것보다 부동산 정보를 분석 하고 연구하면서 현장과 이

론에 노하우를 쌓아간 것이다. 물론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경험하기도 하였다. 그때마다 사안에 민감하게 대처했던 것들이 결국 다른 사람보다 앞장서게 되었고, 탁월한 수익 모델로 역세권 개발 지역을 찾아내어 토지를 매입하고 용도에 따라 업체와 개인들에게 공급하는 일을 하게 되었다. 시행사업을 하면서 큰 손실을 보았던 때도 있었다. 그렇지만 경험으로 노후로 리치 부동산 경제 연구소가 우뚝 서기까지 성과를 가져 온 것이다.

리치 부동산 경제 연구소는 10여명의 전문 연구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대한민국 토지분야를 연구하고 분석하여 도서를 출간하고 부동산 세미나 개최와 무료강연을 통한 토지부동산에 대한 이해와 접근을 돕는 일뿐만 아니라 투자수단으로서의 길라잡이 역할도 하고 있다.

나 자신의 한 번의 실수가 곧 수천 수 만 명의 자신의 손실과 낭패로 이어

질 수 있다는 생각에 실수 하지 아니 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한다.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분들이 대개 그렇듯이 은혜 받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된다. 수십억 수백억도 감사와 기쁨으로 드러며 어떤 이는 집을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리고 조그마한 월 셋방을 얻어 이사를 하는 것도 보게 된다. 양 소장 자신도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한다.

또한 리치부동산 경제연구소에서는 작지만 가장 크고 위대한 사업의 한 파트인 전문 분야가 있다. 바로 목회자를 위한 제테크 프로젝트 부서 운용이다. 만에 하나라도 선한 뜻과 목적이 변질되지 않을까 노심초사 하는 마음을 기도와 조언으로 동역해 주시는 부회장 이용남 전도사(승리교회)를 주축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목회자를 위한 사업 파트를 통하여 재정적으로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목사님들과 주를 위하여 열심히 회를 섬기며 기도하는 분들에게 재정확충에 도움을 드리게 되면 늘어난 재정으로 또다시 하나님의 인류구원 사업에 쓰여지지 않겠냐고 양 소장은 말한다.

양기선 소장은 연세중앙교회를 섬기는 서리집사이다. 처음 그곳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청년회장을 거쳤으며, 아내를 만나 성도들의 축복 속에 결혼을 했다. 또한 신학교에 들어가 목사가 되겠다는 생각도 있었다. 소명을 받아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구원 사역에 쓰임받길 기도 하였지만 그만큼 그릇이 안되었는지 지금의 부동산 사업을 하게 되었다며, 목회의 길을 가지 못한 것을 아쉬워한다. 양 소장은 한 주간 내내 분주하게 활동하다 지친 심신으로 교회에 나가 기도를 하다보면 주려있는 영혼의 실상을 보며 눈물이 앞을 가릴 때가 많다고 한다.

양 소장은 평생 교회 100개를 개척하는 것을 목표로 기도한다고 한다. 아직 재정적으로 넉넉하지는 않지만 돕는 교회가 하나 둘 늘어나다 보니 어느 정도 심적 부담도 있는 것 같다. 사실 많은 목사들이 개척교회를 하면서 사제비도 없이 힘겨운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리치 부동산 경제 연구소가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접목시켜 관리하여 후에 가서 교회와 목회자의 재정확충을 이루어갈지 관심이 주목 된다.

이 사업으로 큰돈을 벌려면 돈 많은 이들을 상대하면 외형적으로, 재정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양 소장은 형편이 열악한 환경에 목회자들을 돕자는데 결심을 가졌다. 그것이 양기선 집사의 믿음이고 선한 경영마인드를 품은 청지기다. 소장 양기선 집사는 오늘도 이 일을 위하여 두 부름을 꿋고 기도하면서 사무실을 찾아오는 목회자와 장로, 권사, 집사를 VIP로 환영하고 대접하면서 항상 기도를 부탁하고 있다.

대표 양기선 02-538-6610 010-5550-0190
부회장 이용남 02-539-3014 010-2332-1379

연세중앙교회 50일 작정기도회 열어 매일 3000명 참석

『기도로 영적 혁명 일으켜 부흥 이루자』

교회 대성전 매일 3000여 명이 울리는 기도의 향로

전 교인 50일 작정 기도와 43일 총력전'을 위해 매일 저녁 3000여 명의 성도들이 예루살렘성전에서 기도를 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기도하는 인원이 늘어나 조금만 시간이 늦어도 자리가 없을 만큼 기도의 열기가 뜨겁다.

전 교인 50일 작정기도대회가 6월 6일(주일) 저녁예배 때 드린 출정예배를 기점으로 연일 뜨거운 기도 합성이 예루살렘성전을 가득 메운 가운데 진행되고 있다.

하계성회 하루 전인 7월 25일(주일)까지 50일 동안 이어질 이번 기도회는 연세중앙교회 전 성도가 ▲영적으로 고인 물은 생수로 완전히 바꾸어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자 ▲영혼이 잠되면 법사가 잠된다 ▲기도하여 내 삶의 환경을 형통하게 하고, 능력 받아 이웃 영혼을 살리자는 취지로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2시간씩 진행되고 있다.

성도들은 기도회를 기다렸다는 듯이 평일 오후 6시면 이미 예루살렘성전에 모여 기도를 시작하고 7시경이면 성전에는 기도용 의자들로 가득 찬다. 조금만 늦게 와도 앉을 자리가 없을 정도다. 기도회는 매일 3000명 이상 참석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첫날 기도한 자리가 지정식이 돼 대체로 질서정연한 모습이다.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가정들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는 모습도 눈에 띄며, 학령기 자녀를 기도모임에 동참하도록 교육해 고사리 손을 들고 눈물로 기도하는 아이들 모습도 눈에 띈다. 인천, 안산, 장안평 등 교회에서 먼거리의 교구는 기도처에서 실시간으로 상영하는 공동 대성전 기도회 현장을 보



윤석전 목사

면서 똑같이 뜨거운 합성으로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다.

청년회 역시 각 부마다 지정석을 정해 놓고 서로 전화로 행하고 권면하며 기도회가 끝나는 날까지 승리자가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 기도시간에 늦게 도착할 것을 염려한 직장인들은 버스 대신 지하철로 퇴근길을 재촉하기도 한다. 퇴근이 늦은 청년들은 기도회 중간에 들어와 뒷심을 발휘하며 2시간을 고스란히 채우고 자리에서 일어난다. 온 힘을 쏟아 기도한 후 돌아가는 발걸음은 가볍기만하고 뿌듯한 승리감은 이미 응답을 얻은 듯하다.

윤석전 목사가 아침저녁으로 보내주는 문자메시지는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싶은 마음을 북돋운다. 대학선교회도 학업 시간을 쪼개 기도에 동참한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기와 장호섭 형제는 "예술을 전공하다 보니 기도가 부족하면 영적으로 힘들다.

50일 작정기도회로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문화사역의 꿈을 이루고 크게 사용당하기 위해 기도회를 우선순위로 잡았다"고 고백했다. 벌써 7월 25일, 50일 작정기도회가 끝나고 수많은 복을 응답으로 받을 그날이 기대된다. 험하는 집회가 되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한기총 대표회장 JEA 정기총회에서 설교

이광선 목사 "한일 양국교회의 연합기도사역" 강조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가 일본복음동맹(JEA) 제25회 정기총회에 참석해 설교하고 한일 양국교회의 연합기도사역을 강조했다.

이광선 목사는 지난 2010년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일본 시즈오카현 야마하리조트에서 열린 JEA 총회에서 예레미야 33장 1-7절을 본문으로 한 설교를 통해 최근의 한반도의 정세를 반신부자

유자(중풍병자)에 비유하며, "윤명공동체인 북한문제에 대하여는 마비가 된 반신을 건강히 다른 반신이 무시할 수 없다"며 "그 누구도 고칠 수 없는 개인적 육신의 질병에 대하여 하나님만이 완전하게 고쳐주시듯이 이 총체적인 대한민국의 국가적인 질병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일본교회가 중보자이신 예수님의 사역을 본받아 특별중보기도 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어 "일본의 총체적인 위기

상황에 대하여서도 한국교회가 예레미야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온전하게 치유해 주셔서 열방에 쓰임받는 민족이 되게 하실 것"이라며 양국교회의 연합기도사역에 대하여 강조했다. 이번 한기총 대표회장 이광선 목사 방일에는 총무 김운태 목사가 수행하여 축하 순서를 담당했다. 한기총과 JEA는 2009년 12월 8일에 선교협약을 체결했다.

이제 교회도 풀 칼라시대!

COLOR가 살아있는 **칼라주보복합기**

세계 최초 1m 20 출력

주보 2단 4면, 3단 6면, 4단 8면(복사, 출력) 가능

표준 소비자가 ₩1,595,000 → D/C ₩605,000

교회 특별행사가 ₩ 990,000

인쇄 + 복사 + 스캔 + 팩스 = 하나로

동급 최고의 인쇄 속도를 지원하는 콤팩트한 디자인의

주보용 컬러 레이저 복합기

PRINTING SOLUTIONS

COLOR 3530 MULTIFUNCTION PRODUCT

PC형 주보 인쇄기

우리교회 주보 (인쇄물)

우리가 만들어요

- 순쉬운 작동
- 신속한 인쇄
- 저렴한 비용
- 고해상도의 인쇄물
- 컬리 인쇄로 OK
- 용지선택의 Free
- 뛰어난 내구성
- 다양한컬리인쇄

영광기업이 15여년을 보증했습니다.

-한번 판매한 제품 끝까지 책임지겠습니다.-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서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세계최초 칼라 복사기

A3 20매

200만원대 출시기념!

흑백기 가격으로 칼라기를 쓴다!

100대 한정판매시 ₩6,800,000 원 → ₩2,990,000원

※빌려서라도 이번 기회에 꼭 구입하세요. (36개월 할부, 중고복사기 보상)

컬러 복사기, 주보 인쇄기, 흑백 복사기, 양면인쇄, 신제품 출시, 팩스인쇄, 원본(복사)본인 스캔(인쇄)

이제 교회도 FULL Color시대 입니다!!

세계최초 최대 1m 20cm 출력!

Color 200 A3 단면에 자동 양면 칼라 / 흑백 출력 복사 & 프린트!

Q. 각지로 나가 비싸지 않아요?

A. 재보너너를 공급해드립니다!

주보 전도서 포스터 현공투 소책자 교회요즘 부흥해배너 등 주일학교 유치원 초·중·고등부 홍보실 침구류 성가대실 교회사무실 등

가성비 DOWN 성능 UP

8가지 기계용 하나로

모든 부서 인쇄물을 단 한대로 ok

교회의 모든 인쇄물을 단 한대로 ok

누구나 쉽게 작업 만드는 교회인쇄물

절지기, 중절기

중절제본 & 절지기

B5-A3까지 중절제본 - 절지 장 이상의 주보교세 복사용 20매 80페이지까지

주보 절지기

B5-A3주보 2면에 절지 장은 2면까지 절지 가능 분기 & 매달

T-인착기

영광기업 칼라복합기로 사진, 그림, 글씨를 출력해서 1장부터 다량까지 즉석에서 티셔츠, 쿠션, 모자, 가방, 타올 등에 T-인착기로 찍어서 여름성경학교, 교회 각종 행사에 필요한 모든제품을 직접 만들면 시간적 약은 물론 비용 면에서 말기는 가격에 10~90%까지 절약되며 우리교회만의 독특한 상품이 완성됩니다.

인사말씀

항상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교회와목사님과 장로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좀 더 좋은 제품, 공급을 통하여 교회에 이바지한다는 사명감 아래 교회의 입장에서 최선을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목사님 가정과 교회에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 빌며 앞으로도 많은 지도와 격려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대표이사 : 정학영 장로 올림 010-5779-0691

서울시종로구 효제동 51-3 (한국교회 100주년기념관 옆)

C·P: 010-5779-0691, 017-332-3217 Tel: 02-2065-1004 Fax: 032-544-0244

50여종의 교회에 필요한 사무기기까지 있습니다.

영광기업

주식회사

영광기업 | 1588-0691

Glory Enterprise Co., Ltd. | www.jubo114.com



칼럼

박영남 목사
건국대학교 문학, 문학, 논술이카데미 주임교수
본지 상임이사, 시인, 문학 평론가

능력의 차이는 5배, 생각의 차이는 100배, 천배, 만 배다

1) 지금부터 2,400여 년 전 그리스, 마케도니아 왕국에는 세계적인 영웅 알렉산더가 있다. 알렉산더는 당시 세계 최강자였던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파죽지세 그의 여세를 몰아 아라비아 아시아까지 정복해나갔다. 그러나 알렉산더는 몇 년을 전쟁터에서 파로 한데다, 말라리아에 걸려 왕궁에도 못 들어가니 30세 객사하고 만다. 아이러니컬한 것은 세계를 정복한 절대 강자가, 작은 모기 한 마리에 물려 죽었다는데 있다. 알렉산더가 살아있을 때 일이다. 알렉산더를 가르치고 왕과 영웅으로 길러준 멘토는 당대의 최고의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였는데, 숨어있는 은둔의 철학자이면서 명성이 더욱 대단했던 인물이 나오기 니시다. 알렉산더는 천기와 역사를 꿰뚫어보는 디오기 니스를 궁궐로 모셔 고견을 듣고 싶었고, 왕사 멘토로도 삼고 싶었을 것이다. 어느 날 왕궁에서 나와 일부러 디오기 니스가 머물고 있다는 아테네 뒷골목, 개집 같은 통속에 달팽이처럼 처박혀 쪼그리고 앉은 디오기 니스를 찾아갔다. ‘홀통하신 선생님이 이게 웬일입니까? 이러시지 마시고, 저하고 왕궁으로 가십시오. 제가 정성껏 스승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소원이 계시면 말씀만 하십시오. 무엇이든 다 들어 드릴 겁니다.’ ‘대왕이시여, 재발, 햇빛이나 가리지 마시고, 비켜서주십시오’ 높고 깊은 생각, 철학을 하기위해서는 삶이 단순해야한다. 이것이 high thinking simple life다. 알렉산더는 작은 변방에서 태어나 무력으로 세계의 중심에서 넓은 땅을 정복하려 했으나, 그 힘 있는 영웅은, 작은 모기 한 마리에 먹고 말았다. 그러나

가진 것 전부, 개집 같은 통 하나, 전 재산인 디오기 니스를 중심으로 한 우주를 통달하는 그리스철학과 학문, 생각하기가 2,000년 동안 전 세계를 바꾸며 끌고 가고 있다. 여기서 민주주의가 나왔고, 천문 우주 물리학과 과학이 나왔고, 인간의 교육 제도, 대학 아카데미가 나왔다. 2) 앤텔선 동화에 ‘미운 오리새끼’ 이야기가 나온다. 집오리 새끼 동지에서 함께 태어난 백조새끼가, 오리새끼들 틈에 자라나면서 왕따, 따돌림 당하는, 서글프고 외로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있다. 자기들 모습과 다르다고 소외시키고 따돌리는 오리새끼들 틈에 끼어, 같은 형제로 철저히 믿고 살아왔던 백조새끼가, 어느 날 자기모습과 똑 같은 어미 새들을 바라보다가, 자기는 오리새끼가 아닌 백조새끼라는, 잃어버린 자기정체성을 발견한다. 생각이 바뀐 백조새끼는, 자기를 왕따 시킨 오리새끼들을 따돌리고 멀리, 그리고 높이 하늘로 자기의 길을 찾아 날아간다. 이제껏 땅바닥에서 수평의 기어가기, 차이의 경쟁, red-ocean game에서 말리던 백조새끼는 생각하나 바뀌면서, 땅에서 하늘로, 수직의 차원의 경쟁, blue-ocean game으로 바뀐다. 약자는 항상 무리에게서 왕따 당해 밀려나고, 강자는 무리를 왕따시키며 스스로 떠나간다. 능력의 차이는 박 터지게 경쟁하고 뛰어봤자 5배, 의식과 생각의 차이는 100배, 천배, 만 배다. 3) 이솝 우화에 ‘토끼와 거북이’의 달리기 경쟁은 처음부터 잘못된 불공평게임이다. 토끼의 코드는 지상동물, 거북이의 코드는 수중동물, 토끼의 코드는 빠르고, 거북이의 코드는 느림이

다. 여기서 분명히 개념을 정리하고 들어가야 할 것은 빠름이 부지런함이 아니고, 느림이 게으름이 아니라는 문제다. 이 게임의 주관자는 서로 코드가 다른 것 까리, 불공평한 달리기 게임을 붙여놓았다. 그런데 이 게임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게임의 당사자인 토끼의 생각과 거북이의 생각이, 이 게임을 주관하는 주관자의 의도와 목적을 간파하는 데, 토끼와 거북이의 생각이 하늘과 땅의 차원만큼 다른 점에 있다. 토끼는 몇 백 미터, 단거리를 달리는 거리게임으로 이해하고, 거북이는 몇 년, 몇 십 년을 달리는 시간게임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토끼는 앞서가기 위해 빨리 뛰어야 하고, 거북이는 오랜 시간을 달려가기 위해서는 자기절제력과 속도와 자기만의 보폭으로 자치지 않게 걸어야 한다. 이 게임의 주관자의 의도는 시작은 불공평한데, 달리는 시간을 공평하게 준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종점, 끝인 하는 지점地點이 공간space 아닌, 시간time,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5년-10년, 20년을 계속해서 달려갈 토끼는 지상에서 한 마리도 없다. 오직 시간게임의 승자는 지구상에서 거북이 뿐이다. 느림의 코드가 빠름의 코드를 이기는 길은 게임을 파악하는 생각이다. 능력의 차이는 5배, 의식과 생각의 차이는 100배, 천배, 만 배다.

4) 남보다 조금 앞서가고, 조금 더 잘 살기위해서는 능력과 기술, 지식을 개발하면 된다. 그러나 또 다른 경쟁자에게 금방 잡히고 만다. 능력과 기술, 지식의 차이는 남보다 5배를 앞서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런데 생각과 사고, 의식을 바꾸면 100배의 차이, 수평의 경쟁에서 수직의 경쟁, 차이의 경쟁에서 차원의 경쟁으로, 땅과 하늘의 길로 벌어진다. 똑 같은 날개를 가진 새라도 닭은 땅 바닥을 벗어나지 못하고, 참새는 날아 봤자 5m를 못 넘고, 까치는 10m, 독수리는 1,000- 2,000m- 에베레스트 10,000m의 고도를 넘어서 날아간다. 같은 날개를 가진 새라도 전혀, 차원이 다르다.

이웃과 함께, 국민과 함께, 교회와 함께

전국교회에서 승리의 합성은 한국 축구 16강을 이루었다

한국 대 그리스전 경기가 있었던 지난 2010년 6월12일(토)저녁 7:00 세계 복음화에 앞장서고 있는 목동제자교회(정삼지 목사) 제2성전에서 미션 코리아가 주최하는 월드컵 응원 행사를 가졌다. 1부 문화행사에서 제자교회 소속 국내대표 CCM그룹 디사이플스가 분위기를 이끌어 응원전에 참석한 제자교회 성도들과 수도원에서 모인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은혜로운 자리였다. 특별초대된CCM가수 소향은 가장력 넘치는 찬양을 통해 대한민국의 희망과 승리를 기원하는 귀한 시간이었다.

태극기 및 미션코리아 깃발 기수대의 행진에 이어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미션코리아 응원가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분위기는 고조되었다. 홍보 대사로 위촉된 소향에게 정삼지 목사(미션코리아 대표회장)로부터 위촉패 전달식이 이어 한국교회와 세계스포츠선교에 힘쓰는 분들에 대한 공로패(이영무, 류영수, 김민섭, 채광수, 전용대 목사 등) 전달식이 있었다.

2부 월드컵 응원전에 앞서 정삼지牧사는 태극전사와 대한민국의 승리를 기원하며 성도들과 마음을 함께 모아 기도를 드렸다. 이어 대

형 스크린을 통해 B조리그 1차전 그리스와의 경기가 시작되자 교회안을 가득 메운 성도들과 지역주민들이 제자교회에서 준비한 태극기를 휘날리며 응원 도구를 동원하여 대~한민국을 연발하며 힘차게 응원하였다.

경기가 시작되자 태극전사들은 그리스를 압도적으로 주도하여 전반 7분 이정수의 선제골과 후반 7분 박지성의 추가골에 힘입어 2-0으로 완승했다.

태극전사가 골을 넣자 응원 참석자들이 일제히 자리에서 일어나 환호하며 다함께 승리의 합성을 외쳤고 득점의 기회를 안타깝게 놓쳤을 때는 다함께 아쉬워했다. 교회 성도들, 성도가 아닌은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 태극기를 흔들며 하나가 되었다.

주최측에서 배포한 “미션코리아” 홍보지를 인용하면 대한민국에 복음이 들어온 이후 기독교가 우리 문화를 이끌어왔으나 2002년 월드컵을 전후하여 현재까지 국가와 민족은 “붉은악마”로 위장한 “악마시탄”의 문화가 국가를 위태롭게 하여 교회를 영적으로 병들게 하고 있다고 하고 이 나라에 “붉은악마”가 존재한다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국가적인 범죄 행위라고 했다.

깨어있어야 할 교회와 성도들이



▲'미션코리아'대표회장 정삼지 목사(제자교회)가 성도들과 함께 한국 축구가 16강이 되기까지 응원을 펼쳤다.

붉은악마 문화에 젖어 축구 국가대표팀을 응원 한다는 명분으로 붉은악마를 상징하는 붉은옷 (be the reds, All the reds..)을 입고 길거리에서는 물론 교회에서까지 열광하였다고 하며 지난 월드컵에서는 300만명 이상이 도깨비, 악마뽀를 쓰고 응원을 하였고, 붉은악마 회원들은 기독교를 개독교라고 비난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교회와 성도들은 붉은악마의 이름으로 응원에 참석한 것을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고 응원문화에 대한 올바른 시각을 갖고 미션코리아를 통하여

응원문화의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나가기야 한다.

이날 전국의 많은 교회가 교회와 교회 앞마당을 지역주민들의 응원공간으로 개방하고 응원도구를 제공하였다.

이번 남아공 월드컵을 계기로 전국 교회를 중심으로 크리스천들이 뽀뽀 뽀뽀 교회를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이 함께 모여 응원하는 아름다운 기독교 응원 문화를 전개함으로써 대한민국을 응원하고 지역사회를 섬기는 교회로 거듭나 부흥의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하며 기대를 모아본다.

미니 인터뷰

“신앙은 요지경이 아닙니다”



신신애 증권 밸런트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 역시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축복도 감절로 받는가 보다. 젊음이나 미모가 출중하게 뛰어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음악성이나 춤솜씨가기가 막힌 것도 아닌데 요즘 잡도 제대로 못잘 정도로 비뚤어 뛰어다니는 중년의 여자 밸런트가 바로 신신애다. 골목마다 조금은 병방한 표정으로 두 어깨를 뒤로 제치고 ‘세상은 요지경’이라며 흔들려대는 이관사 판 춤을 추는 어린이들, 그리고 약간의 춤능중 결린 사람처럼 풋바람에 힘을 주고 ‘잘난 사람 잘난 대로 살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 산다’를 부르는 젊은 사람들, 기하 신신에 신드롬이라는 소리가 나올 정도다. 오죽하면 본인의 본인인 연기가까지 잠시 휴업하고 연일 지방으로 불려 다니고 있을까? 하지만 신신애는 요즘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축복을 보너스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더 큰 축복을 태어날 때부터 왕창 받았으니까 말이다. 그 축복은 바로 뛰어난 한 번 읽으면 도대체 잊지를 않는 초대형 용량의 메모리 컴퓨터가 신신애의 머리속에 들어있다는 사실이다. 몇 년 전 미니시리즈에서 한 쪽 눈이

완전히 돌아간 사시(斜視)연기를 아주 그럴듯하게 해내더니 얼마 전에는 역시 미니시리즈 ‘회망’에서 뽕짝 네라는 풍수역할을 맡아 드라마가 시작되는 첫날부터 막을 내린 끝나는 날까지 자그마치 천오백곡의 뽕짝가요를 거침없이 불러 낸 적이 있었다. 그것도 곡수를 채우기 위해 대중부른 것이 아니라 멜로디와 박자, 그리고 적당한 부분에서 끊어지고 넘어가는 것까지 완벽하게 해냈던 것, 물론 신신애는 그전까지 가요라는 것에 대해 아는 바도 없었고 관심도 없었다. 오직 찬송만 늘 상 부른 뿐, 그런데 드라마 배역 상 필요하다고 해서 서점으로 달려가 가요 책을 몇권 사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모조리 외워버린 것. 나 같으면 외운다고 해서 외워지는 게 아닌데 신신애는 그걸 불과 일주일 만에 손을 탁탁 털어 버렸다고 한다. 이쯤 되면 연기를 위한 신신애의 집념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고 정말 놀라운 기억력에 혀를 내두르지 않을 수 없지 않을까? 어쨌든 신신애의 노래하는 연기를 접해서 TV로 지켜보던 가수 겸 음반제작자인 김수희가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고 무릎을 치다가 머리에 떠오른 생각이 ‘그래, 신신애의 뽕

짝메들리 테이프를 만드는 거야. 그럼 기사 아저씨들이 좋아하겠지?’ 이런 계산에 이른 그녀는 그 다음 날 두둑한 현금봉지를 신신애의 눈앞에 내밀며 우선 계약금으로 주고 어렵게 녹음날짜를 받아낸 것. 이와 함께 신신애는 어떤 노래로 녹음을 해야 인기가 있을까 고민에 들어간 신신애는 언젠가 들었던 멜로디에 직접 가사를 써내려가기 시작했다. ‘간혹사였던 내가 밸런트가 돼서 이렇게 인기를 얻다니 정말 세상은 요지경이야. 그리고 이전 노래까지 취입하더니 참 세상은 요지경이다. 더구나 내가 부른 노래의 가사를 생각하고 있으니 세상은 요지경, 요지경 속이라. 그대 세상은 요지경 바로 이거다’해서 써내려간 노래가사... 그 뒤로 테이프가 나온지 3개월, 테이프공장 직원은 한여름에도 휴가 얘기를 못 꺼낼 정도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으니 정말 축복을 보파리로 받은 셈이다. 따지고 보면 지금의 인기도 놀라운 암기력 때문인데 그런 신신애가 자랑하고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이 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해온 신신애는 신앙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야말로 달달 외우고 있다.

이웃과 함께 · 국민과 함께
www.missioncorea.com

홍길남세요!!!

미션 코리아가

당신을 응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사 41:10)

승리하는 대한민국 MISSIONKOREA 선교하는 한국교회

110-740 서울특별시 종로구 연지동 136-56 한국기독교연합회관 1109호 HOMEPAGE : www.missioncorea.com E-MAIL : missioncorea@naver.com TEL : (02)3394-5404~5 FAX : (02)3394-5406

토브교회 창립 4주년, 토브데이 1주년기념 찬양축제

인물인터뷰 토브교회 담임 김광식 목사



토브교회 담임 김광식 목사

『김광식牧사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와 축복을 함께 나누며, 이 민족을 살리는 교회, 장애우들의 보금자리 토브교회로 큰 비전을 가지고 있으며, 문 닫는 개척교회를 살리며 3곳의 교회를 섬기고 있다.』

장애인들의 아버지로 널리 알려진 김광식 목사는 지난 달 21일(월)저녁 7시 경기도 과천시 과천동 소재 에서 토브교회 창립 4주년과 토브데이 1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의 밤에 말씀과 찬양으로 자리를 가득메운 성도들로 주님의 사랑과 축복의 장이 되었다.

창립 4주년과 토브데이 1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에 김광식 목사는 토브교회의 비전은 더 넓은 곳으로 옮겨가 많은 장애우들과 함께 기할 수 있는 시설과 교회를 건축하는 데 있다며 간절한 기도를 주눅했다.

김광식 목사는 험난하고 어려운 긴

터널을 빠져나오는데 몸부림치는 아픔이 었다. 그 누구도 자신의 회생과 헌신을 외면하는 이 때, 오직 장애인들을 위하여 외길을 걸은 김광식 목사, 김 목사는 서울 종로구 연지동에서 교회를 시작했지만 결국 뜻하지 않게 7급 번씩 교회를 옮겨 다녀야 했고,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 험난한 사역을 접지 않고 장애인들을 지키며 헌신을 다해 온 가운데 토브교회의 큰 비전을 펼쳐가고 있다.

토브교회가 한국장애인전도협회로 현 판식을 가졌다.

토브교회가 연지동에서 이곳으로 옮겨와 4주년이 되었다.「토브」란 뜻은「창세기 1장 31절에서「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씀을 인용한「토브교회」이다. 「행복한가정, 행복한교회, 행복한사회」라는 표어로 2006년 5월 2일에 교회를 설립한 김 목사는 종로 여전도회관 옆 연지동교회를 시작했고, 당시 교회와 기독교 추모관 납골당을 건립하던 중 큰 낭패를 보았다. 건축허가를 받아 기독교 추모관을 건축하던 중 시로부터 건축을 중단하라는 압박과 건축허가가 취소되고 날마다 엄청난 플래카드를 걸고 2-300명의 대모로 몸살을 앓았으며,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곳으로 옮겨온 것이다.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한국전도협회의 초대 이사장은 서영훈 전 총리였으며, 또한 과거처 장관이었던 정근모 장로가 초대 이사였다. 또 최정희 장로가 협회 회장이 됐다. 그래서 결국 1994도에 한국장애인전도협회를 통해서 국제장애인교류협회와 사단법인을 내어 정식출범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 후 2대 회장에 김동식 목사가 되었고, 그는 북한 탈북자를 돕는 가운데 북

한당국의 총살로 순교했다. 이 일이 있은 후 한국장애인문화교류협회가 유명무실해졌다. 이 단체를 2009년 최정희 장로의 요청으로 한국장애인전도협회의 간판을 토브교회에 걸었다.

양어장이었던 물웅덩이가 변하여 장애우들의 보금자리인 교회로, 온갖 꾀박과 고통은 물러가고 매월 셋째 주 월요일은 토브데이로 음악축제를 열고 있다.

김 목사는 과천에 비닐 천막교회를 세우고 장애인들과 예배를 드렸을 때 성도들과 아이들이 너무도 기뻐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몇 주 지나자 또 다시 청천병력과 같은 철거 명령이 떨어졌다.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 시설 중에 화장실을 수색식 번기로 만들었으며, 그 외에도 비록 천막이지만 시설을 갖추었다. 그러나 시설을 한지 겨우 2개월 쯤 지나자, 땅 주인이 찾아와 주위에 진정이 많아서 안 되겠다며 나가달란다.

하늘이 노랗다. 결국 철거를 하고 바로 이곳으로 옮겨 온다. 이곳은 양어장을 했던 곳인데수족관인 물웅덩이가 아주 크다. 하지만 물웅덩이를 매우고 장애우들을 위한 시설을 만들고 교회를 만들었다. 지금은 동리 주민들의 협조로 교회가 장애인들과 안심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 주민들은 더 이상 이사 가지 말고 이곳에 교회를 지으라며 협조하고 있다. 한때 주차문제로 비협조적이었던 형제도 적극적인 협조를 하고 있다.

토브교회는 매월 셋째 주 월요일에 토브데이로 음악축제를 열고 있다. 토브데이 이름 하게 된 동기는 전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매월 음악축제를 통해 토브교회는 초청받은 목사를 강사로 세운다. 매월 50-60명이 참석하여 예배와 기도, 찬

양으로 음악축제가 열리고 이날 정성을 다해 드려진 헌금은 즉석에서 개척교회 목사나 어려운 이웃을 택하여 헌금전액을 공개적으로 전달하며, 토브데이의 축제와 의미를 설명하고 참석한 이들과 성도들을 환영하며 인사로서 막을 내린다.

전국에 있는 장애인 시설을 견학하고 실망이 컸다. 좋은 시설과 학교를 운영하면서 더 어렵고 힘들어하는 아이들을 외면하는 데 마음이 아팠다.

우리나라 전국에 있는 장애인 시설들을 돌아본 결과는 실망했다. 그 좋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100명도 안 된다. 이유인즉 극히 정상적인 아이들만 그곳에 있다. 말 잘 듣고 편한 아이들만 데리고 있다. 그러한 곳이 전국에 90%를 차지하고 있다. 오히려 그 좋은 시설에서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을 돌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힘들고 어려운 아이들은 다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거의가 무인가 시설에서 돌보고 있다. 또한 목사들의 임의단체에서 그들을 수용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너무 속이 상했다.

좋은 시설과 학교를 운영하면서 어려운 아이들과 힘들어 하는 아이들을 수용하고 돌보아야 하는데, 그들은 왜편하고 데리고 있는데 그다지 어려움이 없는 장애인들만 수용하다 보니 그 좋은 시설이 아깝게 비어 있다. 이들 단체장들을 보면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해서 이사장이나 대표회장 등 명분을 따기 위해서 그렇다. 그뿐 아니라 김광식 목사는 개척교회를 섬기다가 운영하기가 너무 어려워서 문을 닫아야 하는 교회를 찾아가 문 닫지 말 것을 권면하고, 직접 그 교회를 참석하면서 어느 정도 교회가 성장하기까지 선교로 믿어주고 있다. 웬만큼 교회가 성장하면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섬기고 있다. 현재 섬기는 교회가 3곳이다.

김광식 목사는 토브교회를 섬기면서 장애인을 고용하는 작업장을 운영하며 재활의 꿈을 심어주고 있다.

초기에는 20여명의 장애우를 두었는데, 오해요지를 사지 않기 위하여 이전에 사용되었던 시스템을 다 바꾸었으며, 또한 장애인 운영방점은 복지공단의 장애인들을 6개월간 고용하여 작업할 수 있는 일거리를 항상 제공한다. 그 공동 작업으로 얻은 월급은 나누어서 각 자의 통장에 입금해 주는가 하면, 또한 복지공단에서 개인당 60-70만원의 봉급이 나오는데 이 사실을 그들에게 주고, 그 역할을 6개월 동안은 복지공단에서 확인해야 한다.

그것은 이 사람이 이 작업장에서 일하



본지와의 인터뷰를 하는 담임 김광식 목사(좌)와 편집국장 정기남 목사(우)

고 있는지를 확인한다. 사실 일하는 사람은 없는데 이렇나 올려놓고 봉급을 타내는 부정한 행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 그래서 6개월 동안 이를 확인하고 작업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생활할 수 있는 급여와 식사와 교통비를 지급하게 된다. 그래서 제 1작업장이 신정3동에 있으며, 제 2작업장이 인근에 있는가 하면, 제 3작업장은 부천에 있다. 김 목사는 계속해서 장애우들을 위한 작업장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이다.

꽃동네를 능가하는 복지관을 건립하여 기독교의 위상을 높이겠다.

김 목사는 여력이 있다면 전세 등 월세이던 시설을 얻어 주어서 장애인들을 비롯 65세 이상의 일자리가 없는 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힘써나갈 생각이다. 사회복지 시설을 갖추고도 심한 1급 장애인이나, 침해증상이 심한 노인들, 알아주지 않은 사람들을 70%이상 음성적으로 교회에서 목사나 전도사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돌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인들의 인식은 천주교(꽃동네)에서 이일을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실 천주교나 불교 등지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지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예산으로 복지관을 경영을 하고 있지만, 우리 기독교가 가장 어려운 장애인과 노인들을 돌보는데 정부의 어떤 지원 없이 이를 없이 빛도 없이 이들을 돌보고 있다. 전국에 그러한 교회와 시설이 많다.

김 목사의 구상은 천주교의 꽃동네를 능가하는 사회복지 시설과 납골당 등을 연지동에서 이미 계획을 해 왔다. 당시 전국에서 각 총회 총회장들, 목회자들이 하루에 20-30명이 연지동을 찾아 주었고, 납골당 VIP 시설에 각 교단별로 20개씩 무상으로 제공할 계획을 세웠다. 한국기독교의 순교자들을 위하여 전용 추모관을 건립하는 일이었다.



토브교회 4주년 및 토브데이 1주년 찬양축제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

교회가 부패한 사회를 막지 못하면 부패한 사회가 교회를 부패케 할 것이다.
교회가 亡하는 것은 의인이 없어서 亡하는 것이 아니라 개악(改惡)을 응징하지 못할 때 亡한다.

한글 개역(改譯) 성서는 개역(改易)이고, 개정(改正)은 개악(改惡)이다!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의 오정(五正)은 오악(五惡)의 거짓말이다.

■ 거짓말 개악성서를 모두 리콜하라.

1. 한국 도요타의 거짓말

일본의 ‘한국 판매 차량에 문제는 절대 없다’는 말은 거짓으로 드러났다. 그러자 1만 3천대에 대하여 서둘러 리콜 조치했다. 한편 미국에서는 도요타가 속제달 결함률 고의로 은폐해 왔다는 이유로 18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조선일보 2010년 4월 7일) 우리 나라에서도 내년부터 TV, 세탁기 등 가정 제품과 모든 문구, 장난감 등 생활제품 불량품에 대하여 강제 리콜한다고 발표했다(국민일보 2010년 3월 1일) 그런데 개악성서들은 왜 리콜하지 않는가!

2. 대한성서공회의 거짓말

1998년(666x3)에 대한성서공회가 72,712곳을 개정한 성서는 개악(改惡)성서로 판정이 났다. 오역된 단어와 문장이 1만여 곳, 그 가운데 시급히 교쳐야 할 곳이 4천여 곳, 개악(改惡)이 8백여 곳이 된다.(강원주, ‘개역개정판에 대하여 말한다’의 머리말) 기타 원문상의 오류가 3만여 곳이 된다.

- 대한성서공회는 개악의 진원지(震源地) · 개정위원 및 감수위원은 맹약(盲謬)
- 대한성서공회 선전요원 목사들은 열악(劣謬)
- 개악성서 사용을 결의한 교단들은 우악(愚惡)
- 예정합동총회는 다악(多謬) · 한국기독교총연합회는 총악(總謬)
- 한국성경교회 오정(五正)은 오악(五惡)

* 렬 2:19 ‘네 자신의 사악함이 너를 비로잡고 네 티락함이 너를 꾸짖으리라. 그런즉 네게 주 네 하나님을 버린 것과 네 속에 나를 두려워함이 없는 것이 악한 일이요, 쓰러린 일인 줄 알고 주의하라. 주 만군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3. 한국성경공회의 거짓말

2007년에 한국성경공회가 출간한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의 다섯 가지(五正) 원칙(①바른 신학 ②바른 원칙 ③바른 역사 ④바른 언어 ⑤바른 번역, 바른 대법)은 오악(五惡)이요 그것은 거짓말이다. 바른 성경이란 명칭은 1998년에 바른성경선교회가 창립하면서 등록한 출판사 명칭이다. 이 출판사에서는 ‘바른성경’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성령님의 조명 아래 엄밀하게 검토한 결과, 한국성경공회가 출간한 ‘바른 성경’의 다섯 가지 원칙은 모두 거짓말로 판명이 되었다. 그 후부터 본 선교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은 ‘거짓말 성서’라고 세상에 알리게 되었다(손기태 저, 개악은 개악이다, pp.101~119) 세상에는 수많은 거짓말들이 홍수를 이루고 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는 거짓말은 성령님을 모독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짓말은 영원히 사함받지 못하는 거짓말이라고 성경은 말한다(마 12:21~22)

4. 13구절의 거짓말

개악성서는 다음 13구절(마 17:21, 18:11, 23:14, 막 9:44, 46, 11:26, 15:28, 눅 17:36, 23:17, 렬 8:37, 15:34, 24:7, 28:29)에 괄호를 치고 (없음)이라 거짓말을 하고 있다. 한편 ‘바른성경’은 배교의 결정판 NIV를 답습하여 괄호 처리를 하지 않고 절이 있는 것처럼 속이고 있다. 성경을 속이는데 개악성서보다 더 지능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 13구절 가운데 9절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이다. 예수님께서서는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마 24:35, 막 13:31, 눅 21:33)고 하셨다. 그런데도 성경을 번개시키는 사탄의 하수인들은 팔호나 절 뛰어넘기 같은 교묘한 수법을 사용하여 예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

거짓말 ‘개역개정판’,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 오악(五惡)의 거짓말 성서들은 하루 속히 서둘러 모두 리콜하라. 이것은 엄숙한 하나님의 명령이다(렬 23:16,17)

■ 하나님의 최후 경고! (계 22:18~20)

“18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 하실 것이요,

19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기록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20이것들을 증언하신 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도다. 아멘, 주 예수님이여, 과연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

지금 한국교회는 총동원하여 이 일을 위해 힘을 모아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물질을 봉사하십시오.

개악은 개악이다(손기태 박사 저) 저서에는 ‘개역개정판’ 성서와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의 오류들이 모두 밝혀져 있습니다. 이 책을 한국 전교회에 무료로 우송하는 운동에 많은 동참을 호소합니다.

팩스 (081-594-3733)로 신청하시면 즉시 무료로 우송하여 드립니다.(송료는 본인 부담)

‘개역개정판’, ‘하나님의 말씀 바른성경’ 하루속히 모두 리콜하라! Recall하라!



바른성경선교회 · 개악성서 리콜운동본부
경기도 남양주시 금곡동 758-9
(031) 592-7079, 594-3733(Fax 검용)



모든 차종, 선박 등 써보면 후회 없는 연료절감기 한이전자 ECS

고유가 걱정 없는 연료절감기 출시

고유가시대 연료절감기를 장착하는 날부터 연료절감 효과를 바로 체험합니다.
자신 있게 권해 드립니다. 만약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문제가 있다면 즉시 교환해 드리며,
원하시면 환불도 가능한 효과 만점인 ECS 한이전자 연료절감기입니다.

ECS
한이전자
환경과 미래를
생각하는 기업

연비는 높이고 성능은 향상돼 일석이조의 효과
매연저감장치 ECS가 드립니다.



제품의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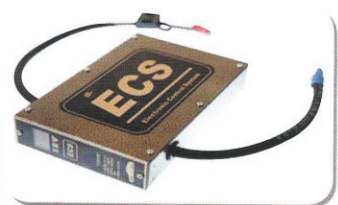
- 자동차의 연료, 공기, 온도, 산소센서 및 점화장치, 전기·전자 제어장치 등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연비에 부러가 걸립니다 또한 연소과정이 불안정해 비연해 발생하고 출력이 떨어지게 됩니다.
- 이때 ECS(Electronic Control System)을 장착하면 점화의 변위를 제어하여 전기장치에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배터리의 활성화를 통하여 차량의 성능을 향상시켜 줍니다.
- 따라서 차량의 출력을 상승시키고, 연비 향상과 매연감소 효과를 증진합니다.
- 아울러 배터리를 비롯한 5원기 이상의 전기를 사용하는 부품 및 구성품의 기능 향상 및 수명 연장에도 도움을 드립니다.
- 용량이 적은 저용(온도)은 관계가 없지만, 고기에 판매되고 있는 저용(슈퍼 온도)은 많은 점진 용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봄·방전 시 주변 회로의 순간 전압 저하로 발전기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 ECS는 9종의 특허기술로 이러한 자동차 및 선박의 손실요소를 방지해 드립니다.

ECS의 장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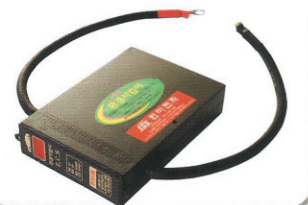
- 자동차와 선박의 성능을 최대한 유지 EDLC를 사용하여 배터리에서 발생되는 주 전원을 양질의 전압으로 공급해 ECU에서 정확한 센서값을 감지하고 연산 오류 없이 제어함으로써 전기를 사용하는 기기의 부품, 5원어 기의 성능을 최상으로 유지시킴.
- 매연을 원천적으로 억제 비연발생의 주요원인인 노원현상을 제거할 수 있도록 최첨단 IC칩을 이용하여 순간적으로 전압을 체크해 불안정한 전압과 연소를 정상화시키거나 억제해 비연은 줄임.
- 확실한 연비 향상 EDLC와 첨단 IC칩 활용으로 노원현상을 최대한 억제해 에너지 100% 가까운 연소로 연비를 향상시킴(기존 연비대비 15% 내외 향상).
- 진동 및 소음감소 출력 향상으로 낮은 RPM에도 주원성을 보장 할 수 있어 소음과 진동을 감소시킴.
- 제품의 견고성 및 영구성 구현 주요부품들은 실리콘 웨이퍼 유동성을 방지하고 방수하여 AS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 설치 간편 스웨이 하나로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을 접속만 하면 간편하게 설치를 끝낼 수 있음.

차량용

· 제품모델



ECS125: 12V



ECS150: 12V 소형차용



ECS2200: 24V 버스용

※ 외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입력전원 : 12V(기본형)
· 케이스 : PP
· 크기 : 16cm × 11cm × 3.5c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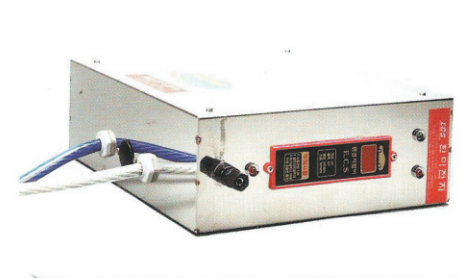
· 중량 0.7kg
· 퓨즈 : 20A(차량용 과전류 방지용)
· LED창 : 전압 및 체크
· 적용연료 : 가솔린, 디젤, LPG

선박용

· 제품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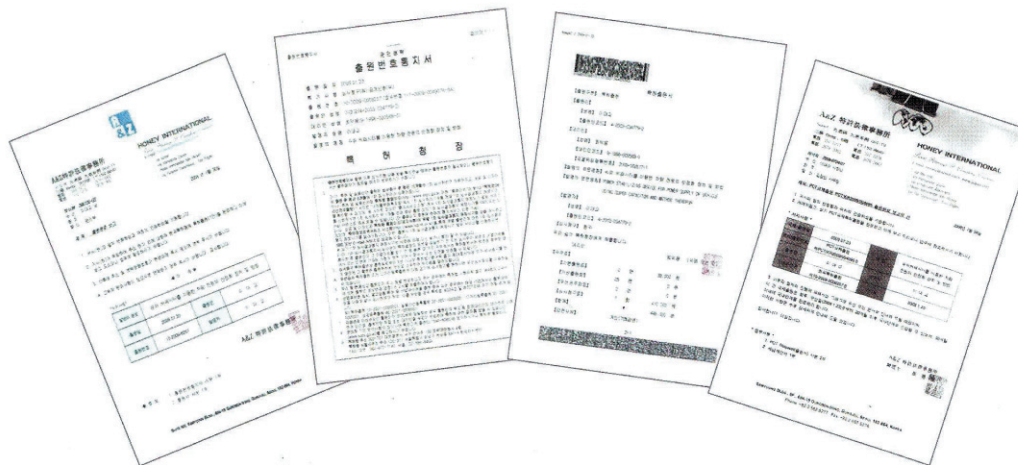


ECS300: 24V 200마력



ECS400: 24V 300마력 / ECS500: 350마력 이상

국내외 특허 및 인증현황



디자인은 모방할 수 있지만 핵심기술은 모방할 수 없습니다

한이전자는 인증받은 기술력

(특허출원: 국내 10-2010-30095호, 국제 PCT-KR-2009-004095호)으로
세계최고의 제품을 양산 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끊임없는 연구와 개발을 통해 소비자 만족도를 더욱 높이는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상동 454 대명앤스빌2차 1007호

TEL : 032)329-1255 / FAX : 032)327-1222 http://www.ecs111.com